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927 1982년 9월 14일(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Tuesday, September 14,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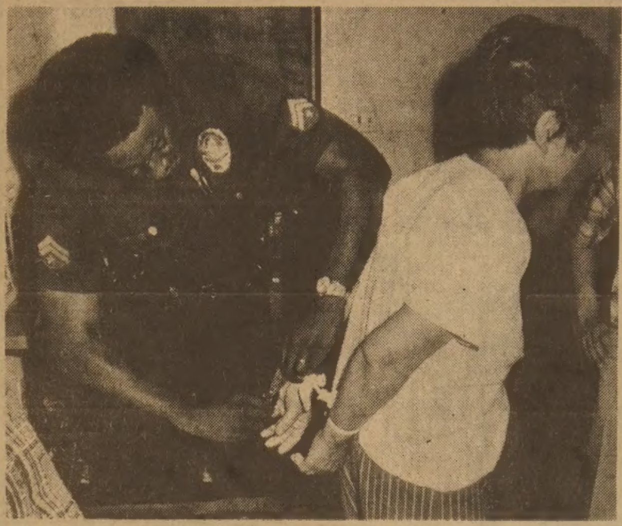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이석현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LA한인타운 범죄수법 대담해져

한인노인들에 큰 위협

범죄 50%가 노약자 대상



◆무방비 상태의 한인 노약자 대상의 범행현장—10일 상오 LA교포 홍후길 할머니가 침입한 강도에게 입에 자갈과 양손을 뒤로 묶인채 소파에 쓰러져 있다(위).

◆출동한 경찰관이 홍할머니의 결박을 풀고 있다. 홍할머니는 이날 혼자 빈집을 지키고 있다가 강도를 만났다.

(LA지사발)교포 노인들은 불안하다. 안전한 곳이 없다. 최근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노인들의 밀집지역 아파트, 단독주택을 전문적으로 노리는 각종 범죄가 횡행, 「무방비상태」의 한인노약자들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노약자 대상의 범죄는 지금까지 노상에서만 주로 일어났으나 최근에는 한걸음 더 나아가 아파트에 혼자 있는 노인들을 감금하는 과감한 수법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LA당국도 올해 1월부터 7월사이의 코리아타운내의 월번 평균범죄 건수를 50여건으로 집계하고 있는데, 이중 50%이상이 한인노약자들이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인피해는 10일 일어난 케이스가 대표적.

이날 상오 9시20분께 3052 W. 7th St.에 거주하는 홍후길할머니(66세)는 빈집에 혼자있다가 느닷없이 들이닥친 1명의 멕시컨계 강도를 만났다.

범인은 방안에 들이닥치자마자 홍할머니에게 "돈을 내라"고 소리쳐 "없다"고 말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마구 구다한후 곧 방안에 있던 런닝셔츠를 찢어 입에 자갈을 물렸으며, 또 양손을 뒤로 결박, 소파에 내동댕이 쳤다는 것.

이어 범인은 벽장을 비롯한 침대및 옷장 설합까지 샅샅이 뒤졌으나 현금및 귀중품이 나오지 않자 약5분후 도주했다.

이 강도 사건은 홍할머니의 남편인 홍성태옹이 인근에 볼일보러 나가고 없는 사이에 일어났다.

홍할머니는 범인이 사라진후 묶이지 않은 발로 바깥으로 걸어나와 신음을 하자 마침 집바깥에서 청소중이던 집주인 최순진여인에게 발견된 것.

최여인은 곧 경찰에 신고, 출동한 램파트경찰서 경찰관 2명이 홍할머니의 결박을 풀었다. 경찰은 범인이 노인이 혼자있는 틈을 노린것으로 보아 평소부터 범행대상을 노린 주변 우범자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한인노인들은 최근 빈번한 노인대상의 범죄에 대해 "길거리, 공원, 비스정류장, 집안에서까지 우리들을 노리는 범죄때문에 불안해 못살겠다. 경찰도, 한인들도 아무도 우리들을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인조혈액 수혈 성공

캐나다 최초로 몬트리얼의 셀르노박사

(몬트리얼)몬트리얼의 한 의사가 토론토에 거주하는 53세의 환자에게 캐나다의학사상 최초로 인조혈액을 수혈하는데 성공했다.

화제의 주인공은 로열·빅토리아병원에 근무하는 토머스·셀르노박사. 셀르노박사는 지난주초 인조혈액 수혈을 위해 토론토 제너럴·하스피탈에서 급거 공수되어온 조지·제크펠드씨에게 수술전 2.5리터의 인조혈액을 수혈했으며, 수송후인 다음날 또 다시 1.5리터를 보충했는데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크펠드씨는 콩팥으로 통하는 혈관에 이상이 생겼으나, 사람의 피를 거부하는 특수체질로서 인조혈액 사용이 불가피했다.

토론토 제너럴하스피탈에서는 로열·빅토리아병원의 셀르로박사가 최근 미국의 인조혈액 공급자로부터 캐나다 공급허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제크펠드씨를 그에게 보낸것.

인조혈액이 체내에 산소를 전달하는 푸루오솔(Fluosol)이라고 불리어지는 우유빛 액체로 일본에서 최초로 개발됐으며, 미국에서는 79년이래 30여명의 환자에게 임상실험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캐나다 보건·복지성은 종교적인 이유때문에 타인의 혈액을 수혈받기를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을 믿는 신도들과 인조혈액이 아닌 인간의 혈액에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중환자들에게 인조혈액을 수혈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에게만 인조혈액 수혈이 허용되어 있다.

인조혈액은 일부환자에게는 알레르기반응을 보일 가능성도 있지만 일본의 경우 5백여명의 인조혈액 수혈 환자중 장기적인 거부 반응이 나타난 사람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셀르노박사는 밝혔다.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강찬영
변호사
537-3171
537-3174
484 BLOOR ST. W.
(Bloor & Bathurst)

"미스·서울이 아니다"

치안본부, 이양 납치·강간 외신 부인

(서울13=연합)치안본부는 13일 금년도 미스·코리아선발대회에서 미스·서울로 당선된 이순복(28)양이 서울에서 여러명의 목격자들이 보는 앞에서 강상돈(25)이라는 청년에 의해 납치되어, 지난8월17일 미국으로 강제로 끌려왔다고 하는 콜로라도주 리틀톤발 외신보도(토론토·선지등도 보도)를 부인했다.

치안본부는 보도의 가능성을 부인하는 이유로 1982년도 미스·코리아 대회에서 선발된 미인들의 명단에 이순복이라는 이름이 들어있지 않으며, 8월17일자의 출국자 명단에도 들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주최한 한국일보측도 이순복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가 미스·서울로 당선된 일이 없다고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외신은 9월11일 콜로라도의 한 호텔방에서, 강씨를 납치및 강간혐의로 구속된 강씨가 자기를 미스·코리아 선발대회에서 보고 반해 납치하기로 결심한 것 같다고 말한 이양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박근영양 결혼 풍산금속 부사장과

(서울=연합)고 박정희대통령의 작은 영애인 박근영(28)양이 서울의 풍산금속 부사장인 유청씨와 결혼한다. 결혼식은 14일 박양의 자택.

유부사장은 미국 오즈라호마대학을 수료한 실업가로 금년 33세이다.

TV한국 새 진용 갖춰

새아나운서 김현옥·이성희양

미국 이주 관계로 이임한 김정숙 「TV한국」 프로듀서겸 아나운서 후임으로 두 아가씨가 선출됐다.

토론토 한인회가 추천한 6명 아가씨중 MTV가 선발한 김현옥, 이성희양이 한국프로 제작·아나운서를 맡게 됐다. 주로 김양이 맡으며, 이양은 보좌역으로 맡게됐다 한다.

김현옥양(Morin 킴)은 금년 런던의 웨스톤·온타리오대학 음악교육학과 졸업, 토론토 한인연합교회 성가대 반주를 맡고 있다. 수년전 한인 청소년합창단(지휘 고 한성진) 시절 반주를 전담했었다. 김양은 한국시절 춘천방송국에서 활약한 일이있는 유경험자이다.

이성희양은 요크대학 심리학과 4년 재학중이다. 사회사업가 지[illegible]으로 71년 서울 강남국교 [illegible]때 이민, 연기파 연극학도[illegible], 대한생문예써클「구름다리」 동인이기도 하다.

지난 8일 저녁 토론토 한국관에서 TV한국 방송관계자 회의가 5명의 전문가 참석으로 열렸다.

TV한국운영위원장 오기환씨는 이날 "한국TV 방송관계일을 한인회로부터 전임 맡았다. 그동안 부진하던 TV방송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굳은 포부를 피력했다. 오씨는 DY식품 캐나다총판을 맡고있다.

TV관계 전문가 장기철씨는 "과거와는 달리 TV방송이 정치성을 띠지 않고 순수하게 방영되면 성공할 수 있다. 비지네스로도 얼마든지 가능성 있는 사업이다. 열심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새로 「TV한국」 실무주역의 중책을 맡은 김현옥양은 "새로운 포부로 참신한 프로를 시도하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현재 MTV의 한국어 방송은 30분간 방영되며, 상업광고는 30초당 $80로 최소 13주 이상 계약해야 된다.

오기환위원장은 "현행 30분간의 방영시간을 1시간으로 늘릴 목표를 세우고, 우선 광고주를 많이 얻는 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9월15일부터 변경된 「TV한국」 방영시간은 아래와 같다.

◆TV한국 방영시간
◎MTV: 매주수요일 아침 10시 — 10시30분
◎Rogers: 매주토요일 저녁 7시 — 7시30분
◎City TV: 매주일요일 아침 8시 — 8시30분

◆「TV한국」 주역이 된 피아니스트 김현옥양

◆매스컴의 길로 나선 연극학도 이성희양

캐나다팀 5위 세계아마야구대회

(서울 13일 = 연합) 13일 인천에서 벌어진 제27회 세계아마추어 야구선수권대회 9일째 마지막날 경기에서 캐나다팀은 8대4로 이겨 통산전적 5승4패로 10개 참가국중 5위를 마크했다.

서울 야구선수권대회의 우승은 7승1패를 기록한 일본에 돌아갔으며 2위는 6승1패를 거둔 주최국 한국이 차지했다. 3위는 대만.

은하 보석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반금와상품 대리점 귀국선물
☎ 534 9977 7791 620A Bloor St. W.

Merrill Lynch Royal Securities Ltd
금·은·증권·Bonds·RRSP에 대한 투자는
361-3428(B), 447-1374(R) : 김상욱
CANADA SAVINGS BOND는 언제나 현금으로 찾을수 있는 가장 안전한 투자대상이 된다. 이는 매년 가을에 한번씩 발행되며, 작년에는 주문이 폭주하여 마감일을 앞당겼읍니다. 저희는 이의 구입에 일체의 수수료를 부가하지 않고 모든 문의에 무료로 봉사하고 있다.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이제부터 관광은 염려하지 마십시요!

코라메관광(KORAME)이 탄생되었읍니다. 계속해서 캐나다·미국등 각국유명 처소를 찾아 교민여러분을 모시고 유람 예정이오니, 많이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일정및 요금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될수도 있읍니다.
★기타 관광에 대한 자세한 문의를 환영합니다.

1. 당일관광 (기간 : 9월15일~10월15일)

	관광지	출발	도착	집합	요금	비고
월	30,000 ISLANDS	9:00	20:00	코라메사무실	$59	관광안내및 왕복교통
화	1,000 ISLANDS	9:00	21:00	코라메사무실	$59	점심, BOAT 유람비용
수·토	NIAGARA FALLS	10:00	19:00	코라메사무실	$55	등 포함

*출발은 7인 이상일때 한함.
*개인별관광(4인이하)은 별도문의 바람
*신청마감 : 각 출발일 이틀전

2. 단풍맞이 특별관광—1박2일 (기간 : 9월23일~10월8일)

	관광지	출발	도착	집합	요금	비고
매주 목·금	30,000 ISLANDS & ALGONQUIN PARK	목 9:00	금 19:00	코라메사무실	$98 (일인당)	관광안내및 왕복교통, 출발일 점심 BOAT유람, 숙박, PARK입장료포함

*출발 : 10명단위 *숙박 : 2인1실 *신청마감 : 출발일 이틀전

대표 김 연태

649A BLOOR ST. W.
TOR., ONT. M6G 1L1 ☎ : 535-0853

코라메 관광(주)
세일여행사옆 사무실

김 연태
함 영호
방 충극

DEAR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3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장로교회 창립예배 성황

김윅스초청 1,500여명 참석

토론토 한인교회들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한인장로교회(목사 박희민)가 창립 제15주년을 기념하여 가진 김윅스 선교사 초빙 음악선교집회는 1,500명의 교민이 동원되는 성황을 이루었다.

한인장로교회 청년교인들로 구성된 할렐루야 밴드부의 복음성가 연주로 시작된 집회중 11일 청소년을 위한 집회는 영어로, 12일 성인을 위한 집회는 한국어로 각각 진행됐다.

빌리·그레함 전도단의 솔로이스트인 강사 김윅스씨는 노래와 간증으로 전도했다.

김익스씨는 6.25전쟁중 실명, 부모를 잃은후 대구 고아원에서 미국인 양부모 조지·윅스에 입양된 뒤 천재적인 음악소질이 발견되어 6살때 발표회를 가졌다.

인디애나대학교에서 음악석사를 취득하고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 풀부라이트 장학생으로 수학했다.

◆한인장로교회 15주년 기념예배광경. 기타와 드럼을 동원한 할렐루야밴드가 복음성가를 부르고 있다.(원내는 기도하는 김윅스양).

김미영 무용학교 개강

탈춤등,25일부터 씨알학교에서

김미영 한국민속무용연구소가 25일 82·83학년 학기를 개강한다.

장소는 씨알학교로, 마찬가지인 디어·파·퍼블릭·스쿨(23 Ferdale Ave, St.Clair×Yonge 동북쪽)

9월25일~83년6월18일까지 매주 토요일 상오10시부터 11시까지의 기초반은 기본동작 1, 화관무, 아리랑 환상곡, 즉흥무, 장고때림의 기본등이며, 상오11시부터 12시까지의 연구반은 기본동작 2·3, 부채춤, 살풀이, 탈춤, 장고춤등을 배울 수 있다.

자격은 고등반부터 성인반까지, 수업료는 32주에 $160(시간당 $5꼴), 4주씩 나누어 등록하며, 시간당 $10씩 $40이다.

등록신청은 9월25일 오전 9시30분부터 디어·파·스쿨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499−5079(김미영씨)로 하면된다.

고전무용가인 강사 김미영씨는 한국춤의 맛을 일반에 보편화시키고, 캐나다 사회의 한 예술분야로서 정착시키기 위해 탈춤등 많은 대중이 즐길 수 있는 한국춤을 전혀 기초가 없는 교민들에게도 보급해 보고 싶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6월중순부터 2개월간 한국, 일본, 홍콩등지를 순방, 한국민속무용공연을 갖고 돌아온 김씨는

특히 이번 여행에서 탈춤에 필요한 악보, 무보등을 수집하는외에 고전춤에 특히 소도구를 대량 구비해 왔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김씨에게 연락하도록, 김씨는 한국에서는 TV출연, 신문사 인터뷰등 바쁜 일정을 보냈고, 일본, 홍콩에서는 공연이외에 그곳 민속춤을 돌아보는등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고 자신의 근황을 밝혔다.

◆김미영씨

지미·코너스 왕좌차지

3년만에 US오픈 재탈환

(뉴욕)테니스의 왕자 지미·코너스가 3년만에 또다시 세계를 제패했다.

코너스는 12일 뉴욕의 내셔널·테니스·센타에서 거행된 US오픈 최종일 경기에서 체코의 이반·렌들선수를 6−3, 6−2, 4−6, 6−4로 눌러 과거 5년간 4차례나 차지했던 유·에스 오픈테니스 선수권 대회를 재탈환했다.

이날의 극적인 승리는 그가 영국의 윔블돈대회에서 존·맥켄로를 꺾은후 불과 2개월만에 안겨진 영광이며, 이날의 승리로 상금 4백만달러가 넘어선 최초의 프로테니스선수가 되었다.

이날 경기가 끝난직후 가진 인터뷰에서 지미·코너스는 "금년초 나의 목표는 윔블돈대회를 이기는 것이었는데 윔블돈경기이후 열심히 뛴 덕분에 나이30에 이렇게 유·에스 오픈대회를 재패하게 되었다"고 자랑스러워 했다.

코너스는 과거 렌들선수와의 10차례의 경기에서 9번이나 이긴 전적이 있기 때문에 이날 경기에서도 이길수 있다는 신념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3세트에서 팽팽한 접전을 벌인것을 제외하고는 신축성있는 게임운영으로 자기보다 나이어린 상대를 제압했다.

마지막 세트에서 렌들선수가 백핸드·발리로 친 공이 네트에 걸리자 코너스는 두손을 번쩍들어 승리의 기쁨을 감추지 못했으며, 이로써 3시간9분동안 계속된 경기는 끝이 났다.

이날의 승리로 코너스는 사상 기록적인 통산전적 95번째의 토너먼트승리를 기록하게됨과 동시에, 9만달러의 상금을 추가, 72년도 프로로 전향한 이래, 상금 4,020,165달러의 실적을 올렸다.

◆지미·코너스가 유·에스 오픈 테니스대회에서 체코의 렌들선수를 물리치고 세계랭킹 제1위로 되돌아 가는 순간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노인 인구 급증 추세

이대로 가면 인도가 최대인구국

만일 현재와 같은 인도의 인구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중공이 제로 인구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경우 인도는 30년대에 중공을 앞질러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가 될 것이라는 새로운 분석이 나왔다.

최근 발간된 국제인구백과사전(엔사이클로피디어)은 이러한 분석외에도 전세계적으로 노인층의 인구가 급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콜럼비아대학의 인구·가족보호센터에 모인 학자들은 서기2천년에 이르면 개도국들에서만도 65세이상의 노인이 80년의 같은 연령층 세계총노인수보다도 74%늘어난 3억4천9백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BC11세기이래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말이면 정확히 인구10억을 돌파했다고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82년 중간의 인도인구추계는 7억1천1백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존·로스 엔사이클로피디어 편집장은 인터뷰를 통해 중공의 현저인구성장률이 유지되거나 성장률이 더 떨어지고, 인도의 현인구 성장률 2%가 계속된다면 서기2천10년까지는 인도가 중공을 앞지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스박사는 또 이번 국제인구백과사전 출간을 위한 유엔의 한모임에서 인구통계학자및 다른 참석자들에게 연설하는 가운데 최근의 세계인구 성장률 둔화에도 불구, 인구수준이 여전히 너무 높아 전반적문제에 대한 관심이 계속 견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인구문제상업기금의 라파엘·살라스 이사장도 이회의에서 지난 69년까지만해도 유엔기구안에서 취급하는 것이 기피되고, 또 언급할 수 없었던 인구문제가 이제 국가개발기획중 우선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문제는 또한 전세계적으로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출간된 백과사전은 산아제한에 관한 중공의 태도변화에 주목하고 중공은 1가구 1자녀의 실천과 서기2천년까지 인구를 12억미만으로 제한하는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백과사전의 중공부담당자들은 또 4인방의 몰락이후 중공의 과학, 특히 사회과학에 대한 공식적 태도에 두드러진 변화가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이 백과사전은 콜럼비아의과대학의 연구계획사업에 따라 맥밀란출판사에 의해 출간됐다.

「바바라」에 물으세요

▲필자.

이것이 북미생활이다

○(문) 저의 어머니와 친구분이 저를 위해 20살가량의 이곳청년과 데이트 약속을 해 주셨읍니다. 저도 좋기는 하지만 캐네디언남자들이 데이트를 할때 어떻게 한다는 것을 많이 들었던터라 부끄럽기도하고 약간은 겁이나는데요.(스카보로 정)

●(답) 정양이 캐나다청년에 대해 들은 얘기는 어머니가 딸에게 하는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이곳 남자들은 가능한한 자유분망한 데이트를 즐기려하지만 그기준은 언제나 여자쪽에 달려있읍니다.

요즈음 젊은층사이의 사귐이 너무 방종에 치우친다고 많이들 생각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양과 같이 높은 윤리적 기준을 갖고 있읍니다.

제가 알고있는 북미와 한국에서의 데이트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북미에서의 데이트는 아주 빈번하므로 단지 친구로만 여길뿐 한국처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양의 경우 여자쪽이 어떤 높은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면 상대청년도 정양의 기준에 맞추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문) 최근 저의 남편은 20명의 종업원이 있는 회사를 인수했읍니다. 종업원중에는 마리·존슨이라고 하는 23세의 교환양도 있읍니다.

저의 질문은 호칭에 관한 것으로 제가 남편에게 전화할때 교환양에게 무엇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마리가 좋습니까? 미스존슨이 좋읍니까? 남편의 호칭은 무엇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까? 저 자신은 어떻게 표현해야 합니까?(아나하임 Mrs. K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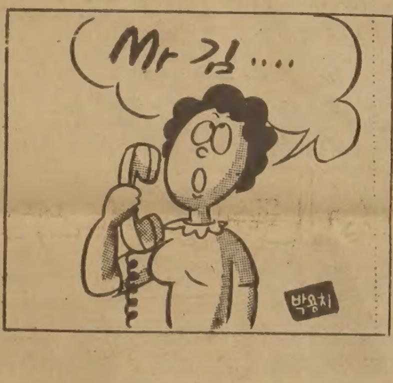
●(답) 최근 미국에서 호칭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기본적인 기준은 있읍니다.

귀하의 경우, 교환양은 종업원이며 동시에 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화할때 그저 「마리」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합니다.

귀하의 남편은 그 회사의 주인이고 사장입니다. 따라서 「Mr.김」이라고 불러야지요. 만약 회사내에 Mr.김이 또 있으면 남편의 이름과 함께 「Mr.XX김」이라고 부릅니다.

또 귀하는 그 사장의 부인이므로 「Mrs.김」이라고 합니다. 만약 회사에 또 다른 Mrs.김이 있은 경우에는 첫이름과 함께 「Mrs. Kim」이라고 하든지 또는 그저 간단히 「This is his wife」라고 해도 좋습니다.

인반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는 「Mr.」나 「Mrs.」를 부치지만 동료나 부하들에게는 나이나 성별 또는 근무연한에 관계없이 이름만 부르는 것이 보통입니다.



캐나다청년과의 데이트 심각하게 생각말기를

호칭문제…이곳서의 기본적기준에 따르도록

한국외국어대학 동문회주최

친선 골프대회

장소 : GORMLEY GOLF CLUB
(Woodbine & HWY 7 North)

일시 : 1982년 9월19일(일) 오전 11시

연락처 : 동문회장 김영배
494−4209

※동문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한국외국어대학동문회

교민동정

◆최규훈=한국 굴지의 출판회사인 범한서적주식회사의 북미주총판을 맡은 최씨는 지난9일 서울본사 김윤선사장의 방문을 받아 사흘간 바쁘게 지냈다. 「월드·북」에 소개된 한국관계 사진을 사비를 들여 좋은 사진으로 바꾸게 한 김사장은 친구 유형숭씨(메트로·토론토 도서관근무)와도 만났다. 최씨는 이곳서 「한국인물사」, 「태평양전쟁사」, 소설 「토지」등 주로 전집류를 판매하고 있다.

생활영어 ⑥

민병철 담당
(시카고 한인 영어연구원장)

I CAN'T COME UP WITH IT.

언어 학자들은 대개 언어의 형성기를 13세 정도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해서 외국어를 13세 이전에 배우게 되면 그 나라 사람과 별다른 바 없이 구사할수 있지만 그 이후에 배우게 되면 상당히 어렵다는말이다.

한국에서 국민학교를 나오고 중학교를 다니다가 15세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온 학생이 미국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나왔는데도 대학에서 영어가 어려워 공부에 지장을 받는다는 것은 이곳에 온 분이면 한번쯤 들어 본적이 있는 이야기다.

미국에서 10년 살았더라도 한국인 밀집지역에서 영어를 별로 쓰지 않고 살았다면 미국에는 한번도 와보지 못했지만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보다 영어 실력이 훨씬 뒤떨어진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언어 형성기가 지난후의 외국어 습득이란 문법을 따지기 이전에 좋은 표현을 정확히 알고서 외운후 실제 대화를 통해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데 있다.

각설하고, 돈받으러 온 사람이 You owe me $1,000. 「1,000불을 내놓아야 되겠읍니다」라고 하니까, Sorry, I can't come up with it.은 「미안하지만 돈이 마련되지 않았오」라는 뜻이다.

Do you know the answer? 「해답을 나는가?」라는 교수의 질문에 「해답이 안 떠오릅니다」는 I can't come up with it. 라고 하면 된다.

A : John, did you hear me?
B : What?
A : I asked you a question, John.
B : Oh, I heard you, I'm thinking.
A : Do you have the answer?
B : Sorry, I can't come up with it.

A : 잔, 내 말 듣고 있어?
B : 뭔데?
A : 질문을 했잖아?
B : 응 들었어, 지금 궁리하고 있지.
A : 답을 알겠니?
B : 미안하지만 난 해답을 찾아낼 수가 없구나.

※owe : 빚지고 있다.
Ex. How much do I owe you?
(얼마입니까?)

「발음」 Asked you : 「에스크트 유」라고 하지 않고 「애슥추」로 발음된다.

씨알한국인학교

특수 프로그램

●중등부 과 목 : 영 어(캐나디안 정규교사가 지도함)
수 학(Commodore 콤퓨터64 사용)
음악이론(콘서바토리 시험을 위한것)
고전무용(전문적인 레파토리 지도)
수업료 : 한 과목당 1년에 $140 두 과목당 1년에 $260

●초등부와 유치부
과 목 : 영어, 수학, 피아노, 바이올린, 미술, 태권도, 무용, 스케이트와 축구(이상 8과목중 2과목을 선택할 수 있음)
수업료 : 1년에 두 과목당 한학생 $180, 두학생 $350 세학생 $450
버스비 : 두대의 학교 버스를 운영합니다. 신청하실 곳은 ☎ 441−2986 여정자 선생. 9월20일까지 신청마감. 1년에 한학생 $135, 두학생 $260, 세학생 $350

시간과 기간 : 매주 토요일 1시부터 3시까지, 9월25일부터 내년6월까지
등 록 : 9월25일 개학날 당일 9시부터 등록접수하며 위의 학비는 2번의 Post Date 수표로도 접수합니다.

TORONTO BOARD OF EDUCATION

씨알한국인학교

한국어 프로그램(무료)

중고등부	초보반	한국어를 처음 공부하는 어린이
	중급반	이미 한국어를 공부한 어린이
초등부	초보반 A	1, 2학년으로 처음 공부하는 어린이
	초보반 B	1. 2학년으로 이미 공부한 어린이
	중급반 A	3학년 이상으로 처음 공부하는 어린이
	중급반 B	3학년 이상으로 이미 공부한 어린이
유치부	유치반	4살 이상 어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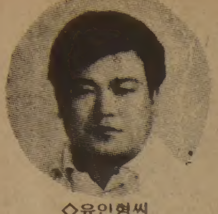
장소 : Deer Park Public School, 23Ferndall Ave. TOR.
시간 : 9월25일 개학 매 토요일 9 : 30분부터 12시까지 (2시간30분 수업)
학교버스 : 씨알학교 특수프로그람을 참고하여 주십시요
성인영어반 : 토론토 교육국의 후원으로 발음과 단어, 읽기등에 중점을 두는 성인 영어반을 같은 시간에 합니다.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 (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영구구독: $50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유인형수필선>②

세 뿌리

유 인 형



◇유인형씨

보리가 익어갈 무렵부터 물레방아는 돌아간다. 산골에서 졸졸 흐르는 물줄기를 막아서 떨어지는 그 물살로 물레방아를 돌렸다.

할머니는 보리겨 묻은 두 손을 썩썩 털면서 「방아 방아, 물방아야…」

언제나 청승맞은 가락을 뽑으셨다.

「할매, 얘기 하나만….」

「못써유. 이야길 좋아하믄 비렁뱅이 되어유. 방아 방아, 물방아야…」

「그래도 하나만 응?」

「이 물을 황소가 마시면 힘이 솟구요. 내 새끼가 마시면 찌를 잘 싸구요. 방아 방아, 물방아야….」

「할매가 마시면?」

삼태기에 겉보리를 퍼담으면서 여전히 흥얼거리셨다.

「늙은이야 뭐. 먼저 가신 할배생각이나 하지유. 그런데 참. 독사가 마시면 독물이 되어유!」

「멍멍이가 마시믄?」

「도둑을 잘 지키며 멍멍 짖지유.」

「그게 끝이예유?」

「또 있어유.」

「진 거야유?」

「길지유. 죽을 때까지 꼭꼭 간직해야 할 3뿌리란 옛날얘기지유.」

「그게 뭐예유?」

「첫째 뿌리는 요 입이야유. 사내란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 하면 안되지유. 그까짓 고기 한 점 덜 먹는 게 좋지. 그걸 더 먹겠다고 입뿌리를 함부로 놀려선 못써유.」

「할매 입은?」

「열무김치에다 풋고추 찌개나 먹지유. 방아 방아, 물방아야….」

「그 다음엔?」

「고추 뿌리예유. 어디 보자. 고추가 여물었나유?」

「고추가 뭐예유? 자지지!」

「요 고추뿌리를 함부로 써 먹으면 짐승이 되고유.」

「이허허! 간지러워유.」

「그 다음엔 요 손뿌리예유. 알아듣겠어유?」

철썩하고 궁멩이를 때린 다음에는 다시 문질러 주시는 것이었다.

「그게 뭔 소리예유?」

「알아들을 날이 오겠지유. 이 할멈도 어려서는 늘 그 이야길 들었지유. 얘야. 입조심 하거라. 손뿌리 단속하고. 3가지 뿌리를 잘못 지켜서 생목숨을 끊는단다….」

물레방아가 떠오르면 할머니 음성이 조금씩 살아오는 것이다. 모두들 자기 본위로만 살다 보면 입과 손과 고추의 욕심만 왕성해진 때문일까.

「아이구매야! 요 손뿌리가 벌써 썩을라구 이게 뭔 짓이예유?」

양지바른 곳에 지천으로 자라나는 싱아도 먹을 양만 꺾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풍요스런 물질을 유산으로 남겨주진 못했어도 자손들에게 3가지 뿌리란 속담만은 들려주셨다. 아무리 아픔을 참고 일을 하더라도 정직한 입을 가지고 떳떳하게 살라고 하신 것이다. 오래 살아보겠다고 아부나 하고, 돌아서면 험담이나 늘어놓는 그런 혓바닥을 원치 않으셨던 것이다.

호사스런 음식을 위하여서 이 말 하고 저 말 하는 후손을 바라진 않았을 것이다. 욕망이야 끝없는 것이지만 타인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손뿌리를 경계한 것이다. 남을 희생시켜 가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손뿌리가 날뛰고 있는 현실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왕창" 끝내려 한다.

노동자를 혹사시켜 임금을 착취하는 검은 손이나 애국이란 칼을 휘둘러 가며 민중들의 권리를 아랑곳하지도 않는 철면피들도 마찬가지다. 저 검은 손뿌리들은 모래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어리석은 방법으로 파멸해 가고 있다.

독사들이 맑은 산골물을 마셔도 독물밖에 더 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도둑질을 해서라도 잘 먹으면 출세했다고 믿는 것이다. 민중들의 입을 틀어막고 고통을 주면서도 자기들의 검은 손은 정당한 절차나 방법을 무시하려 든다.

「거꾸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잖아!」

그럴까? 과연 그럴까? 바로 가자고 입뿌리를 놀린 사람들에겐 더할 수 없는 수난이 왔다. "왕창"한 우국지사들은 앞문으로 집어넣고 뒷문으로 모셔간다.

믿는 사람이 없어졌다. 입과 손이 검게 물들기 시작하면 고추뿌리인들 별 수 있을까. 먹는 것만큼 고추뿌리도 정력에 넘친다. 네것 내것의 소유관념이 희박해져 가는 마당에선 가장 원초적인 욕망을 다스리기 어렵다. 아니 질서고 윤리고 돌볼 사이가 없을 것이다.

어찌됐거나 3뿌리의 욕심이란 뿌린대로 거두어 들이게 되어있다. 그대로 지나가는 것같아도 좀 빠르거나 늦게 땀 흘린 것만큼 수확하게 된다.

도대체 이 밝은 세상에 "와장창" 한꺼번에 끝내주는 게 어디 있는가?

신문을 읽다가 문득 물레방아가 떠오르고, 할머니의 음성이 들려온다. 3뿌리를 잘 다스려야 무소유의 충족감을 느낄 수 있다는 뜻을…. 사치스런 입과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손뿌리와, 향락의 고추뿌리가 얼마나 흐뭇한 만족감을 줄는지….

3가지 뿌리란 이제야 사랑의 매질이란 동화임을 알 것같다. 3가지 습관은 고마와할 일과 고마운 주변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하하, 3가지 뿌리라….

(필자: 문협회원·수필가)

◆NBC-TV 투데이쇼에 출연한 마가렛트·트루도-트루도수상과 별거중인 마가렛은 자신의 남자관계를 묻는 여자 호스트에 발끈 쇼도중 뛰쳐나간지 3년만에 투데이·쇼에 나타나 제2의 자서전 <Consequences>에 관해 답변하고 있다. 자신의 자유분방한 젯·셋(jet Set)식 생활이 끝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자기가 겪은 고통과 체험은 모든 여성에 보편적인 것이라고도 말했다. 마가렛은 현재 오타와의 한 TV에 모닝쇼 호스트로 일하며, 수상 관저부근 자택에서 트루도수상과 교대로 세 아들을 돌보며 산다.

金聖鍾작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67>

어떤 殺人 ⑭

毛世가 전화… "한시간내 집으로 가겠다"

「그럴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 따위는 듣고 싶지 않아. 네 남편한테 바로 연락하려다가 너한테 전화건거야. 오늘까지 여유를 줄테니까 입금 시켜. 만일 어기면 우리 거래는 끝장이야. 너 대신 한기수를 만날 거다.」

일방적으로 말하고 전화를 끊으려는 것을 그녀는 가까스로 붙잡았다.

「모세! 잠깐! 내말 들어요!」

그녀는 허겁거렸다.

「뭐야?」

「사실은 저…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은행엘 가지 못한거예요. 돈은 겨우 준비했는데 급히 나가다가 다리를 삐어가지고 지금기브스를하고있어요.」

「정말이야?」

「정말이에요!」

그녀는 필사적으로 전화통에 매달려 소리쳤다.

「그럼 딴 사람을 시키면 될거 아니야?」

「시킬만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돈을 가정부한테 가져가게 할 수도 없고…그래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했다구요. 남한테 부탁할 수도 없지 않아요.」

잠깐동안 침묵이 흘렀다. 모세는 무언가 생각해보는 것 같았다.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이윽고 그가 약간 누그러진 목소리로 물었다. 문자는 펄쩍 뛰었다.

「거짓말 아니예요! 정말이에요! 확인해보면 알거 아니예요!」

「지금 2천불 가지고 있단 말이지?」

「네 가지고있어요. 여기저기에 빌려가지고 겨우 마련해놓았어요.」

「좋아. 그렇다면 내가 가질러가지. 한시간 안으로 갈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그는 전화를 끊으려다가 그녀를 도로 불렀다.

「잠깐, 혹시 수작부리는 거 아니야?」

「수작이라니요?」

「옆에 누가있는거 아니야? 누구한테 지원을 요청한거 아니야?」

「아, 아니예요! 내가 왜그런짓을 하겠어요? 내 신세 망치는 짓을 왜 스스로 하겠어요. 그럴려면 처음부터 경찰에 신고했을 거예요.」

「집에 지금 누구하고 있어?」

「나 혼자 있어요.」

「가정부는?」

「심부름 보냈어요.」

「하긴 뭐 누구하고 있어도 상관없어. 말해두는데 지원 따위는 집어치워. 난 그런건 질색이니까. 만일 수틀린 짓하면 우린 이별이야. 그때도 나하고 거래를 하고 있을때 너는 안전할 수가 있어. 우리가 이별하면 바로 그 시간부터 너는 네 남편과 가정으로 부터 버림받게 되는 거야. 그 사실을 명심해둬. 알았지?」

「알고 있어요.」

「갈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목욕하고 말이야.」

찰칵하고 전화 끊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뭐래?」

두볼이 다급하게 물었다. 문자는 창백한 얼굴로 오빠를 바라보다가 소파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온대요. 한 시간안에….」

朴男 그림

새로 개업한

서울식품 서부지점

☎: 243-9544

*배추김치·총각김치·파김치·부추김치·오이소백이전문. 1391 WESTON RD

※좋은 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 532-0210 손병헌

한국일보는 가장 넓은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일간신문입니다

내고향 통닭집

◎예전의 분위기가 아닌 새로 단장한 통닭집에 한번 들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성원에 날로 성장하고 있읍니다.

메 뉴

오뎅·백반	$3.75	빈대떡 4개	$2.–
우동	$3.–	짜장면, 곰탕	$3.75
냉면	$4.–	갈비백반	$5.75
통만두	$3.–	생선찌개백반	$4.75
김밥	$2.95	통닭	$5.95
		½닭	$3.75

⊙배달 가능합니다.

658½ BLOOR ST. W. 537-0432 Mrs. 리

1982~83학년도

김미영 한국민속무용연구소

개강안내

◇기 간: 1982년 9월25일부터 1983년6월18일까지(32주간)
◇시 간: 매주 토요일 아침10시부터 12시까지
◇장 소: DEER PARK PUBLIC SCHOOL
23 FERDALE AVE. (쎄인·클레어×영)
◇자 격: 고등반부터 성인반까지
◇프로그램: 오전10시부터 11시까지 (기초반)
오전11시부터 12시까지 (연구반)
◇지도내용: 기초반– 기본동작 I, 화관무, 아리랑환상곡, 즉흥무
연구반– 기본동작 II·III, 부채춤, 살풀이, 탈춤, 장고춤
◇복 장: 움직이기에 편한 복장과 덧신
◇수 업 료: 32주간에 $160
4주간씩 나누어 등록하실 경우(시간당 10달러)
◇신청장소: 위의 장소에서 9월25일 오전 9시30분부터 접수.
◇문의전화: 김미영: 499-5079

國産전투기 領空배치

F5F 示範비행 성공

마하 1.6 미그21凌駕

대한항공서 組立… 엔진은 三星精密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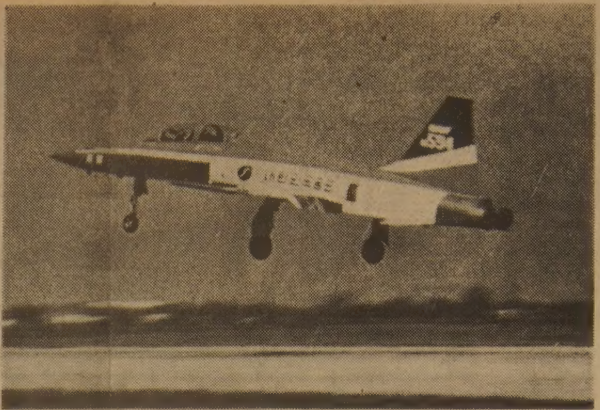
【OO기지=尹國炳·申鉉鉉기자】 우리손으로 만든 국산 제트전투기 1호기가 우리영공에 실전 배치됐다. 大韓航空 기술진에 의해 조립제작된 F5F 국산 전투기가 9일 상오 OO기지에서 시범비행을 갖고 공군에 인계되었다. 이날 시범비행 자리에는 全斗煥 대통령을 비롯한 韓美 군고위장성, 국회국방·신공우원, 워커 주한 美대사등 주한 외국인 인사등 내외귀빈 9백여명이 참석, 「制空1호」로 명명된 국산 전투기가 활주로를 이륙, 솟구쳐 오르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타이거 Ⅱ란 별명을 가진 F5국산전투기는 美노드롭항공사가 개발한 마하 1.6의 초음속제트전투기인데 대한항공 기술진에 의해 조립완성됐고 제트엔진은 三星精密에서 조립제작한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日本, 臺灣에이어 아시아에서 3번째 항공기 생산국이 됐다. 기체가 다른기종에 비해 작고 날렵한 F5는 뛰어난 기동성에 비해 유지비가 저렴한 잇점을 지닌 전투기로 현재 우리공군의 주력기종. 북괴공군의 주력인 미그19나 미그21보다 우수한 성능을 갖고있다.

이날 F16, 팬텀, F5E등 한미공군기 16대가 3색 연막을 뿜으며 행사장상공을 우정비행하는 가운데 「制空1호기」는 全대통령의 제막으로 그날렵한모습을 드러냈다.

기장 劉明烈중령(37)은 관제탑의 지시에따라 활주로를 이륙, 지축을 흔드는 엔진음과 함께 남에서 북으로 창공을 가르며 솟아 올랐다. 이윽고 식장상공에 나타난 국산전투기는 저공비행에 이어 한차례 곡예비행을 한다음 사뿐히 내려앉았다.

오랜 F5E 전투기 조종경력을 가진 기장 劉중령은 시범비행을 끝내고 「국산 F5F는 비행속도에 따라 날개형태가 변형되어 안정감을 주고 레이다의 성능이 倍加된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자랑스런 은빛날개 「制空」1號
조국영공에 은빛날개를 편 F5F 국산전투기。「대한민국 공군」과 「제공(制空)」이란 글자와 태극표지도 선명하다。

全대통령 致辭

"北傀 南侵企圖는 무덤을 파는 행위"

【OO基地=尹國炳기자】 全斗煥대통령은 9일 『北韓당국이 體制內的인 모순을 해결하려는 돌파구로서, 또는 南北간의 深化되는 격차를 해소하기위한 마지막몸부림으로서, 무모한 南侵전쟁을 다시 기도한다면 이는 스스로의 무덤을파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할것』이라고 경고했다.

全대통령은 이날상오 國産전투기 「制空號」(F5F) 出庫기념식에 참석, 치사를 통해 이같이 경고하고 『아직도 赤化夢에서 깨어나지못하고 있는 北韓당국에 대해 蒼空을 가르는 制空號의 超音速 爆音은 그들에게 우리의 의지를 실증적으로 인식시키는 깨우침의소리가 될것으로 믿어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美·蘇 등거리外交

中共、對美우호… 對蘇관계 개선

【北京·워싱턴AP=聯】 제2 上海공동성명이라고까지 불린 최근 미국의 對臺灣무기판매문제에관한 美·중공 공동성명에도 불구하고 中共은 계속해서 미국과의관계에 일정한 거리를 두는 한편 소련과는 조금씩 관계개선을 도모해나갈것으로 보인다고 北京의 정통한 외교관측통들이 8일 말했다.

이번 중공黨12전국대표대회(12全大會)에서의 胡耀邦의 정치보고가 종전의 中共 외교분야에 관한 내용과 최근의 중공동향을 분석한 이 관측통들은 중공이 對美관계에 「훨씬 더 현실적인 입장」을 취하고있으며 점진적인 對蘇관계개선을통해 궁극적으로 美蘇간의 등거리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西方외교관은 중공이 앞으로 워싱턴과 모스크바관계에 있어 보다 신축성있는 입장을 취할것이며 보다 「평행적인 여지」를 가진 「책략적인 원칙」위에서 외교정책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日公使외무부방문 14일檢定會議통고

고또오·도시오(後藤利雄)駐韓日本公使는 9일하오 외무부를 방문,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와 관련, 일본정부가 취하고있는 是正을위한 後續조치에 관해 설명했다.

고또오공사는 이날 崔東鎭 亞洲국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본은 왜곡대목의 시정을 향한 굳은 결의를 바탕으로 교과서 檢定기준을 개정하겠다』고 밝히고 『이와 관련, 개정검정을 신속히 실시하기 위한 절차로서 교과용도서검정조사심의회를 오는 9월 14일 개최키로 했다』고 통고했다。

社會漫評

地平線

문교부는 8일 책가방을 가볍게 하는 방안을 세워 내년부터 시행토록 조치했다 한다. 우선 전국에서 35개의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시행한다음 운영성과를 보아 실시대상을 차츰 확대해 나가겠다는것이다.▼「가방을 가볍게 하는」방안으로는 「헌책 물려주기」를 학생들에게 권장하여 학교에서 헌책을 쓰게 함으로써 그 책만이라도 가방에 넣고 다니지않도록 해본다는 것이다. 자주 바뀌지않는 예·체능과목의 교과서가 물려주기의 첫 대상인 모양이다. 학생들의 책 가방이 무거운것은 자라는 아이들체위에 여러가지 좋지못한 영향을 주는것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책가방 무게가 어느 한계(체중의 20%)를 넘을 경우 그것이 몸에 미치는 영향은 심상치않다.▼우선오른쪽 늑골이 많이 처지게되어 폐와 기관지에 압력을주고호흡장애를 일으킨다. 늑골이처지는데서 간장과 오른 쪽 신장에도 압박을주어 기능을떨어뜨리며 늑간 신경통을 일으키게도 한다. 또 좌측에중심이 몰려 왼쪽 발이나 왼쪽 내장에 과당한 긴장을 주게되고 심하면 장골(腸骨)과 선추(仙椎)의 결합에 이상을 일으켜 몸 전체를 S자형으로 휘게 만들기도한다. 척추만곡증은 이래서 생겨난다.▼몇해전 서울 시내 어느 중학교 교장 한분이 자기학교 학생의 「체위변천」상황을 조사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아직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할만한 것이다. 중학 1학년생의 52.1%, 2학년생 58.5%, 3학년생 73.9%가 어떤 형태로든, 체위가 변형되어 있었다는 보고다. 학생 체위에 적신호가 울린셈이다. 성장 과정에 있는 학생들체위에 이상이 생기고 척추만곡증학생이 눈에 띄게 늘어나게 만드는 「원흉」이 바로 「무거운책가방」.▼그뒤 문교부가 조사한데서도 학생들의 책가방무게는 체중의 14~22%에 달한다는것이 밝혀졌다. 그래서 「책가방 무게 덜기」운동은 오래 전부터(74년, 77년) 처들려왔으나 아직 그리 큰 진전이 없는듯 하다. 수년전 한 정당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교과서들을 두고 다닐 사물함이 설치된 학교는 전체의 25%, 교과서의 분철 사용교가 20%, 종합노트 사용이 11%정도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다.▼프랑스에서는 초·중교의무교육실시로 교과서는 완전 「무료」 배부된다. 아이들은 책을 국가의 것으로 알고쓰며 학년말에는 의당, 다 반납한다. 또 아예 그것은 학교에 두고 다니는것으로 알고있다. 그만큼 가방은 가벼워지고 「책은 물려주는것」이란 생각을 절로 갖게된다. 이번에 문교부가계획한 「헌책 물려 주기」와 「가방무게 줄이기」는 좀더 괄목할만한 결실이 있었으면一。

레바논接境地에 「緩衝지대」

이、敵軍주둔不許

【예루살렘AP·AP=聯】 이스라엘정부는 북부국경지역보호를 위해 이스라엘접경 레바논남부지역에 폭40km의 「완충지대」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아리엘·샤론 이스라엘국방상이 8일 말했다.

샤론국방상은 이날 레바논전쟁과 미국의 새中東평화계획을 다룬 議會에서 그와같이 밝히고 이스라엘은 이완충지대안에서는 모든「적대」군사세력의 주둔을 허락하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했다。

제12회 향토문화상 河寶鏡씨 선청

향토문화사업협회(이사장 文鴻柱)는 제12회 향토문화상 단체수상자로 부산일보사 편집국 특집부, 개인수상자로 河寶鏡씨(77·경남密陽邑三門洞351의8)를선정했다.

부산일보사 특집부는 「부산의 석각자」를 76회에 걸쳐 연재한 업적으로, 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자 河씨는 밀양백중놀이를 보존하고 전승한 공로로 상을받게된다. 시상식은 16일하오3시 부산忠武洞 제일예식장에서 열리며 상금은 각 1백만원。

"「不要不急감사」 배제토록"

金총리, "中央기관市道방문 줄이라"

金相浹 국무총리서리는 9일 上級기관이 各道및 市·郡등 일선기관에대해 監査와 指導방문을 아직도 과다하게 실시하고있어 일선기관의 업무수행에 많은지장을 주고있다고 지적, 『10일부터는 지도방문때 統制기관의 사전조정과 統制를받아 不要不急한 감사와 지도방문을 철저히배제하라』고 지시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83-2801

1人統治·개인숭배 금지

中共새黨憲공개

對蘇 修正主義비난 삭제

【北京AP·聯=聯】 中共은8일 그 全文이 공개된 새黨憲은 『中共黨의 위대한 지도자이자 스승』으로 추앙받아온 前당주석 故毛澤東에대한 기술을 거의 완전히 없애는 동시에 소련을 『수정주의자』라고 비난하는 문구를 삭제한것이 특색이다.

현재 北京에서 열리고있는 中共黨 제12기 전국대표대회(12全大會)의 개막 6일째인 지난6일 채택됐으나 이날 그 全文이 공개된 새黨憲은 現중공지도자들이 지난66~76년간 文化革命소용돌이 속에 中共을 몰아넣은 장본인으로 지적하고있는 毛澤東의 1人통치체제를 강력히배격한것이 특색이다.

이새黨憲은 또①모든 주요 문제들에 대한 민주적토론②여하한 형태의 개인숭배금지 ③집단지도체제채택등에 관한 3개 개별조항을 포함하고있다.

이조항들은 『어떠한 당원도 그 지위가 무엇이건간에 독자적으로 주요문제들에 대한 결정을 내리도록 허용되지않는다。어떠한 지도자도 자의적으로 주요 문제들에 대해 스스로 결정을 내리거나 黨 기구위에군림하는것은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있다.

比、反體制인사 連2일째 示威

마르코스訪美계획 항의

【마닐라AP=聯】 필리핀반체제인사들은 8일 내주에있을 마르코스대통령의 미국방문계획에 항의, 마닐라주재미국대사관앞에서 연2일째 시위를 벌이고 마르코스대통령의 출국일인 14일 마닐라가톨릭교회성당에서 『대대적인』기도회를 열것이라고 밝혔다.

약80명의 필리핀 반정부학생들은 이날 『레이건·마르코스회담은 필리핀국민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기 위한것』이라는 등의 문귀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이다 출동한 폭동진압경찰의 경고를 받고 1시간만에 자진해산했다.

한편 35명의 필리핀정치범들은 고문과 정치적 탄압의 종식, 체포된 勞組員들의 석방을 요구하기위한 3일간의 단식투쟁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메아리

덮개

해방뒤 春園 李光洙는 「나의 告白」이란 책을 냈다. 日政때의 失節을 뉘우친 글이다.

그 글을 보아, 그의 뉘우침이 얼마나 투철했던가에 의문이 없는것은 아니지만, 그가 겪었을 인간적인 고뇌는 십분 촌탁이되고 남는다. 그런 春園의 모습을 그의 8촌되는 李耘虛스님이 『나의兄 春園의 마지막 逸話』(月刊中央 72년5월호)란 글로 써 남기고있다.

反民特委에서 풀려난 春園은 耘虛스님이 있던 光陵奉先寺께에서 한반년 은둔해 지내다, 서울 孝子洞집으로 돌아온다. 春園은 이집에서 6·25를맞고 납북당한다.

그때 집으로 찾아 온 공산당기관원은 春園에게 자술서를 쓰도록 강요한다. 春園이 자술서를 써주자 공산당원은 내용이 글렀다고 욕박지른다.

그러자 벌떡 일어선 春園은, 내가 일본에 무릎을 꿇어 갖은 수모를 다당하며 앉아서 소리를 들었는데, 또한번 공산당에게 굴복하라고 하느냐면서 붓을 꺾어 집어 던졌다.

耘虛스님은, 春園부인에게서 들은 이 일화뒤끝에, 납북뒤의 春園이 對南방송조차 하지 않았다는 말을 덧붙이고 있다. 한 차례 고뇌를 겪고난 뒤의 春園은 다시 한번 무릎 꿇기를 끝내 거부했다는 함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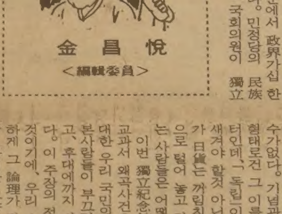
그 같은 심경에 이르기까지, 春園이 겪어야 했던 아픔은 결코 그 한 사람의 것만은 아닐것이다. 3·1운동을 선도한 東京 2·8宣言文 집필자의 變節은 우리 독립운동史의 큰 상처다。뿐이랴。독립정신의 한 淵源으로 삼는 3·1獨立宣言書의 起草者, 그 운동을 主謀하다시피했던 이를 한 사슬에 묶어 反民법정에 세워야했던 것이 우리建國史다。그것은 몇몇 사람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것에 그칠 수 없는 民族史의 비극이다。

지금와서 생각하면 그 때「斷罪」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견디어 낼 마음가짐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 있었던 것 같지 않다。그런 풍조가 해방37년의 精神史를 결정 지었고, 그 때문에 「독립」의 의미마저 희미해 졌다는 생각이 든다。여태 獨立紀念館 하나 없는 나라꼴에 까닭이 없지 않은것이다。

지난 연초, 미국에 사는 春園의 따님이 잠시 귀국했을 때, KBS 텔리비전은그녀와 대학생들을대좌시켜, 春園文學을말하는 자리를 마련했었다. 그자리에서대학생들은春園의親日행적을 꽤 집요하게 따졌다. 유족을 면대해 놓고, 고인의 흠을 꼬집어 말하는 것이 좀 안됐다 싶기는 했지만, 화면에 비친 대학생들의 태도가 진지한 것을 보아, 이른바 한글世代가 日政때 선배들의 행적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알듯했다.

새삼스레 이런 기억이 되살아난 것은 그제(8일) 아침 신문에서 政界가십 한토막을 읽고 나서였다. 민정당의 民族史觀정립特委에서 한 국회의원이 獨立紀念館 건립추진위원중 몇사람의 日政때 행적을 문제 삼았다는 얘기다.

그래서 무슨 회합이 있으려니 했으나 뒷 소식이 전혀 없다. 『和合하는 차원에서 굳이 과거를 따질 것 없다』고 보도된 일부 의견이, 역시 主流를이룬 모양이다.



金昌悅 <編輯委員>

하지만, 그렇게 덮어 두기만 하는 것이 정말 和合하는 길일까 생각하지않을 수가없다. 기념관 추진위원이라면, 어떤 형태로건 그 이름이 기념관에 새겨질 터인데, 「독립」이란 말에 합당한이름을 새겨야 할것 아닌가. 재일동포 여행자가 日貨를 까딱치하다고 韓貨만을섞으로 털어 놓고 갔다는 보도를,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았는지 궁금한 것일까。

이번 獨立紀念館 건립사업은 일본의 교과서 왜곡사건으로 촉발되었다。그에 대한 우리 국민의 한결같은 주장은, 일본사람들이 부끄러운 역사를 감추지 말고, 후대에까지 바로 전하라는 것이었다。이 주장의 정당성은 너무나 自明한 것이기에, 우리 스스로에게 더욱 준엄하게 그 論理가 적용되어야 옳다。막 가십을 그냥 넘기지 못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더구나 和合운운이, 추진위원 인선의 잣대, 또는 흠을 가리는 덮개로 쓰인다면, 아름다운 그말마저 無色해지겠다. 헤겔의 말대로, 역사가 심판임을 다시 생각할 계제인것 같다.

한국일보詩壇

나의 宗教

尹琮碩

나의 宗教는
임태의 크나큰 기쁨
門이 열리는 瞬間의 定座。

목숨은 빈 가지의
뒤태로운 曲藝의 律
바람으로 흩날리다가
무심히 손끝에 와
가슴에 가득 채이는 것

눈부신 光彩도 없이
사소한 것에서부터 日常에로
恩寵로이 이어지는
鐘소리보다 고요히 흔들리는 風磬

깊은 잠을 헤집고
유혹을 터득하는 아침

나에 宗教는
두 개의 눈빛으로
身熱을 앓고 있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공인회계사
이영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5주년 개업기념 스페샬
★기 간: 9월1일~9월30일
10~30% OFF

CX-4 Walnut(open pore)
CX-4 Ebony Polish
$2,995(Re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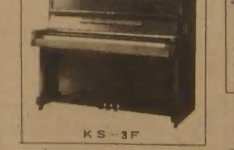
DX300 $3,495-REG

DX80 〈Reg〉 $1,595

DX90 $1,895-REG

DX100 $2,395-REG
DX200 $2,995-REG

⊙새로 도입된 DX전자올갠 전 모델(10% - 15% off)
⊙각종 신형 Model의 upright 및 그랜드 피아노(10% - 15%)
⊙기타 USED피아노및 전자올갠(30% 할인)


◉KS3F(50인치)
Ebony polish
Reg. $4,995

◉US 50 (52 인치)
Reg. $5,995

◉KL32WG(52 인치)
Reg. $6,495
◉KL 502(49 inches)
Walnut Satin
Reg. $4,995
32 WD.

◉UST7(46 인치)
Reg. Ebony Satin $3,995
Walnut Satin $4,095

◉CE7N open walnut $3,395
Reg. Walnut polish $3,595
ivory polish $3,995

Markham Place
2900 Steeles Ave. E.
Thornhill
☎: 881-8211

Hillcrest Mall
9350 Yonge St.
Richmond Hill
☎: 883-9407

가와이 KEYBOARD CENTRE (모짜르트 MUSIC CENTRE) 대표 윤 호 섭

自主國防에 새로운 章

F5F機 國産化의 파급効果

「質·숫적」 對北우위 확보
좁은地域서 機動뛰어나

국산제트전투기 制空1호기가 탄생한 82년9월9일은 우리손으로 만든 우리전투기가 우리영공을 지키는 자주국방의 새章을 열었다는 점에서, 또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3번째 항공기생산국으로 등장, 항공공업기술능력을 과시한 점에서 우리역사에 길이 기억될 날이다.

6·25가 터지던 당시 우리 공군은 L4연락기8대, L5연락기4대, T6훈련기10대등 22대의 낡은 비행기를 가지고 야크9기등 2백11대의 항공력을 보유한 북괴공군과 맞서 手製폭탄을 만들어 던지며 싸웠다.

그로부터 32년만에 우리공군은 북괴공군의 주력기인 미그21보다도 성능이 우수한 F5F초음속 전투기를 우리나라 군수공장으로부터 인도받음으로써 자주국방에 신기원을 이룩하게됐다.

2차세계대전이후 세계곳곳에서 선전포고없이 일어난 1백50여전의 전쟁은 모두가 항공력에의해 그승패가 결정되었음을 우리는 보아왔다.

북괴金日成도 6·25전쟁이 끝난뒤 『유엔군에 패전한 주원인이 제공권의 열세였다』고 자기비판을 한뒤 30여년간 항공기우위를 절대명제로 삼아 군비확장에 주력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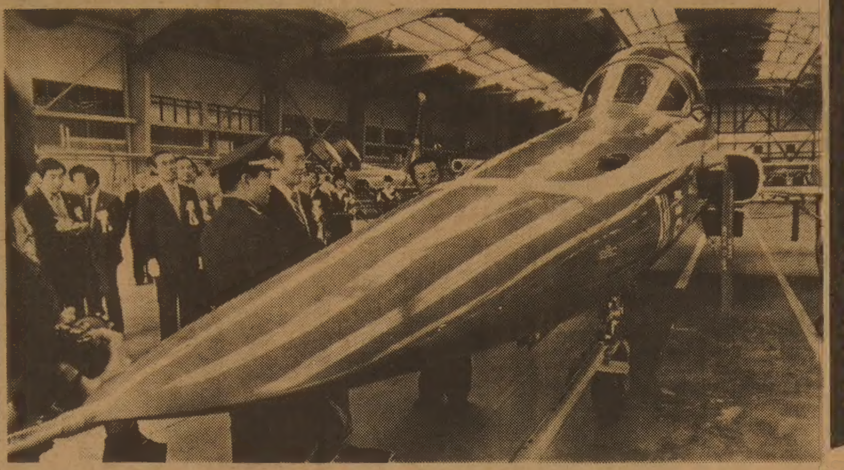
군부 소식통에의하면 북괴는 현재 25개 전투비행단과 3개 폭격비행단에 6백15대의 전투용항공기를 갖고있다. 북괴의 주력기는 소련제 미그15제트전투기이며 보유댓수는 3백40대, 그보다 성능이 앞선미그17기와 50대의 미그19초음속전투기, 1백20대의미그21을 보유하고있다. 金日成은 예정된 北京방문에서 중공제및 미그21및 미그23등 신예전투기의 도입을요청할것으로 알려지고있다.

현재 우리공군은 주한미공군력과 함께 북괴공군에 비해 질적인 면에서의 전투력은 우위를 확보하고있지만 숫자상으로는 열세에 놓여왔던것이 사실이다.

이번 국산전투기의 생산개시는 남북한 공군력의 숫자상 불균형마저도 뒤집을수있는 계기를 맞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9일 첫선을보인 F5F초음속 제트전투기는 美노드롭항공사가 개발한 최신예기로 뛰어난 기동력에비해 보급과 정비지원이 간편하여 유지비가 저렴한잇점을 지니고있다.

F5전투기는 현재 전세계 자유진영국가에 2천여대이상이 운용중에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이 전투행동반경이 좁은나라에서 특히 쓸모가있으며 우리공군은 단2분30초내에 전투태세에 들어갈만큼 이기종에숙련되어 있다고한다.



◇설명듣는 全대통령 — 全斗煥 대통령이 국산전투기 「制空1호」를 제막하고 趙重勳대한항공사장으로부터 조립공정에 대한 설명을듣고있다. 뒤에 조립과정에 있는 또다른 F5F전투기의 모습이 보인다.

세계서 8번째…기술集約 輸出전략商品으로도 有望

국산전투기의 조립제작을 맡은 대한항공은 기체부분에 필요한 부품가운데 2천4백여종을국산화로대체했으며 三星精密이 세계에서 8번째로 개발한 제트엔진을 공급했다.

항공공업은 에너지 집약도가 낮은 반면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부존자원이 부족하고 우수한 노동력을 가진 우리나라로서는 겨냥해볼만한 수출전략산업이다.

이런점에서 지난76년에 이 분야에 착수한 대한항공이 불과 6년만에 항공기의 조립생산에 돌입한것은 기술韓國의 수준을 세계에 과시한 쾌거이기도하다.

항공공업의 발전단계는 ①廠整備기술習得 ②항공기 조립생산③면허생산④자체개발생산의 4단계를 거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제2단계에 와있는셈.

대한항공은 수년전부터 세계각국이 생산하는 어떤 종류의 항공기도 최종정비할수있는 능력을 갖추고현재 서태평양과 극동, 알래스카지역의 美해공군보유 항공기의 후방정비를 맡고 있다.

또 전투기 조립생산에앞서 헬리콥터를 제작하면서 시스팀공학 전자공학 금속재료 공학등 분야의 우수성을 선진국들로부터 인정받았으며 특히 메털·본딩技法등을 자체개발 機體표면처리작업에 독보적인 기술축적을 해왔다.

그 결과 이번에 조립한 국산전투기의 동체와 날개부분은 모두 국산기자재로 만들었으며 헬리콥터 제작회사인 美휴즈社에 대해서도 헬기 동체등을 역수출하고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출고된국산전투기의 국산화율은 아직은 20%(가격기준)에 불과하다.

三星정밀이 만든 제트엔진의 국산화율도 같은수준이다.

항공기 1대를 제작하려면 13만개의 부품이 필요하다.

2단계 조립생산을 넘어서 면허생산으로 발전하는동안 부품하청제작으로 인한 파급효과는 엄청나게크다.

따라서 국산전투기의 조립생산은 국내의 전자공업 금속재료공업 유압기기공업등의 균형있는 발전을위해서도 기폭제가 될것이확실하다. 【申鉉鈺기자】

30代 詩人들이 북치며 詩낭송
民族詩 추구하는 「平民」 同人會

판소리와 전통악기의 연주를 곁들인 詩낭송이 시도되어 좋은반응을 얻었다. 8일밤 文藝會館소극장서 열린 제1회 「평민의 詩낭송회」에서 시낭송과 시낭송사이에 전문적인 판소리전문가가 소리 한마당을 들려주는가하면 鼓手가 북으로 분위기를 고조시켜 주기도했다.

시낭송이라면 음악이 들어가는것이 불문율같이 돼있지만 그동안 그음악은대부분 피아노나 바이올린연주 또는 가곡독창등 서양음악일변도였다. 그러나현대적이거나 西歐的인 정감을 나타낸 詩의 경우에는 하머니를 이룰수있지만 향토적인 정감을 표현한 詩에는 적합하지 못했다.

이런점을 이날의 시낭송을 주최한 평민사는 참가시인들이 대부분 30대의한글세대시인점을감안「한글세대시인들의 시낭송」이라는 부제를 내걸고 전통음악과의 조화를 시도했던것. 이날 낭송회에서 洪申善, 姜昌民, 尹在杰, 金政雄, 頹然, 鄭自明, 黃淸園, 柳子孝, 金英才, 姜敎和씨등 10명의 시인이나와 독자들앞에서 자작시 3、4편씩을 낭송했다. 이들가운데서 洪申善씨만이 40세이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30대시인들. 특히 尹在杰씨의「후여 후여 목청갈아」같은시는 남도의 가락같은 운율로 정평이있다.

주최측은 판소리전문가 2、3명과 장고、북、대금등 전통악기연주자 5명을 동원할 예정이었으나 國立唱劇團이 국립극장소극장에서「흥보전」을 공연하는 관계로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따라서 이날낭송회에서는소리꾼으로는 金素姬여사의 후계자인 申英姬여사 1명만 출연,「춘향전」중에서「사랑가」를 불렀고 전통악기도 북1개만 동원됐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도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워져 1백50여명의 참석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흥겨워했다. 시낭송에서 흔히 볼수있는 딱딱하고 어려운분위기가 가셔「시인과 독자의 만남」이라는 의미를 실감케했다.

그렇다고 어수선하지도 않아 딱딱한 시낭송에서처럼 하품을 하는 관객은 볼수 없었다.

이 자리에는 문학평론가 金載弘씨, 여류소설가 奇一惠씨등 문학계인사들이 다수 참석했는데 이례적으로 가수 趙英男씨가 관객으로 왔다가 주위사람들의 권유와 분위기에 휩쓸려 「세노야 세노야」와 「아침이슬」을부르고 金政雄시인의 시「바람타기」를 낭송하기도 했다.

주최측은 첫 낭송회에서의 성공에 힘입어 다음부터는 보다 본격적으로 국악을 동원하고 이에 알맞는 시를 낭송할 예정이다.

이 시낭송은 계절마다 열계획인데 12월의 낭송회는 「民族詩낭송」으로 주제를 정해놓고있다. 여기서는 절개를 숭상하는 전통의 시조에서 抗日民族詩나 抗日的인 讚詩같은것들을 낭송하게된다. 【梁平기자】

◇8일밤 문예회관소극장에서 열린 제1회 「평민의 시낭송회」에서 국악인 申英姬여사가 「춘향전」중의 「사랑가」를 부르고있다.

청중과의 一體感 조성에 효과적

文化短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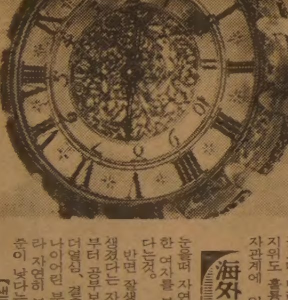
한국일보 文化센터 크로키화실 회원전

한국일보문화센터크로키화실회원작품전시회가 同문화센터 삼성전시장에서 15일까지 열리고 있다. 비스듬히누운 女人, 앉아있는 女人, 서있는 女人의 모습등 소묘여인의 약동하는 아름다움을 그린 32점이 전시됐다.

크로키화실은 그림을 애호하는 일반인및 아마추어화가들의 모임으로 1주일에 3회씩(月火水) 크로키를 배우고있는데 수강은 누구나할수있다. 문의 ⑳4161(交)485.

한소리회 단소강습

국악 아마추어 동호인들의 모임 한소리會는 18회단소무료강습을 13일~25일(상오11시·하오5시·하오7시) 2주간 갖는다. 강습장소는 서울중구오장동206, 문의는 ㉖1413.



◇競賣場에 나온 17世紀 시계 — 1650년께 만들어진 懷中時計. 최근 파리의 한競賣場에서 선보였다. 【키스톤=本社】

海外토픽

못생길수록 地位높아 마누라도 高學歷많아 ……美서조사

얼굴이 못생긴 남자일수록 교육수준과 사회적지위가 높으며 부인 또한 교육수준이 높다는 이색적인 통계가 발표돼 화제.

미국 노드 캐롤라이나대학교의 J·우드리와 부루스·에를런드라는 두연구원이 6백1명의 남자와 7백45명의 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따르면 못생긴남자들은 고등학교시절 못생긴데서오는 열등의식때문에 자연히 공부에 열을올려 교육정도가 높으며 따라서 졸업후 얻은 지위도 훌륭한것이라는데 여자관계에 있어서도 뒤늦게 눈을떠 자연히 공부를 많이한 여자를 부인으로 맞게된다는것.

반면 잘생긴 남자들은 잘생겼다는 자만심때문에 일찍부터 공부보다는 이성교제에 더열심, 결혼을 일찍하게돼 나이어린 부인을 맞게됨에따라 자연히 부인들의 교육수준이 낮다는것. 【샌프란시스코=UPI】

채플린필름 發見
★분실된지64년만에…곧상연

잃어버린것으로 알려졌던 영국의 유명한 희극배우 찰즈·채플린주연의 영화필름 1편이 지난해 11월 발견돼 앞으로 열리는 런던영화제에서 처음으로 상연될 예정.

1918년에 제작된「하우·주·메이크·무비즈」라는 제목의 이 23분짜리 영화는 그동안 영국 ITV사의 보관소내 찰즈·채플린 출연영화필름뭉치속에 묻혀있다 햇빛을 보게된것인데 채플린의 미망인과 가족들은 지난3일 이 영화를 관람했다. 【런던=AP】

욕심많은 西獨의사
★달력없는날짜도 月給청구

서독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주립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은 어찌나 탐욕스러운지 2월30일·4월31일·6월31일·9월31일등 달력에 존재하지도 않는 날짜에 대해서까지 급료를 청구하고 있다고 이 주의 심계국이 보고. 【슈투트가르트=UPI】

한글세대作家 尹興吉의 「歪曲列島」縱橫記
내가 체험한 日本 <6>

삿뽀로 X氏에게

그림 鄭駿浩

"解放 37년지났어도 故國 못찾은 넋 잊었읍니까"

몹시 서글픈마음으로 당신한테서 받았던 모든것을 다시 당신한테 되돌려줍니다. 나는 당신의이름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읍니다.

당신이 그토록 원했기때문에당신의 이름을 가려서 당신에게 닥칠 일신상의 불이익으로부터 당신을보호해주고 싶을 따름입니다.

당신은 유럽유학까지마친 일본의 지식인입니다. 처음 당신을 만났을때 당신은 나에게 솔직한심정을 털어놓았읍니다.

밤늦음 그이야기를 TV카메라에담아도 좋으냐고 나는 당신한데 양해를구했고, 당신은 쾌히 응낙했읍니다.

나는 지금 강요아닌 당신의 자의에 의해서 당신이 내인터뷰에 응했으며 정작 카메라앞에설때까지는열두번도 더 번복할수 있을만큼 한시간이상의 생각할 여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하고싶습니다.

그런데 삿뽀로를 떠나 멀리 아사히가와(旭川)의 예약된호텔에 당도해보니 천만뜻밖의 메시지가 먼저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좋습니다.

나는 당신의 요구에 따라 당신과의 인터뷰를 애당초 없었던일로 백지화 하겠읍니다.

나는 이약속을 꼭 지킵니다.

당신이 나를 일본에 초청해준 단체를 통해서 나한테 전해온 메시지의 내용은 솔직히 말해서 나로 하여금 무척 당황케 만들고 실망케만들었읍니다.

공무원신분임을 염려하는 당신의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당신의 입장을 위해 마치 내가 무방비상태의 당신을 기습해서 失言을 유도해 내기라도 한듯이 내초청자측에 변명했다면, 나는 당신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할수가 없읍니다.

문부대신의 머리가 어떻게됐다고 다들 생각한다느니 북방영토를 둘러싼 소련과의 긴장은 도오쿄의일부인사들에 국한된 문제이며 홋까이도의 젊은이들은 되도록 군사적 마찰없이 편안히 생업에 종사할수 있기만 바라는 패배주의적 사고에 빠져 있다느니하는 발언들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강요나 꾐에의해서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은 아마 삼척동자라도 알고 있을 겁니다.

지도세(千歲)공항에 도착해서 삿뽀로로 향하는 차중에서 내가 처음 본 홋까이도의 자연은 관광 내고향을 연상케할 만큼 아주 낯익은듯한 풍경이었읍니다.

공기는 투명했고 바람은 선선했으며 하늘이나 산과 들의모습도 내조국 한국하고 닮은데가 많았읍니다.

이처럼 남다른 정감으로 나한테 다가온 홋까이도에서 당신은 나를 화나게한 최초의 일본인이 되었읍니다.

이런것도 인연이라고 말할수 있을까요. 생각난김에 인연에 대해서 좀더 말하겠읍니다.

아사히가와 조금 못미쳐 후까가와(深川)역에서 현지안내를 맡기로된 우리교포 崔노인이 기차에 올랐읍니다.

서로 수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기막힌일이 벌어졌읍니다.

명함에 적힌 崔노인의 원고향이 내일행중의 한분인 金형의 고향하고 똑같았읍니다.

피차간에 놀라서 근본을 따진결과 崔노인하고 金형은 상대방 집안을 서로 훤히 아는 친척뻘임이 밝혀졌읍니다.

이국땅에서 수십년만에 처음으로 친척을 만나게된 崔노인이 흥분해서 다시 자기친척인 安선생을 불러 金형하고 대질을 시켰읍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金형하고 安선생사이도 친척뻘이 되는게 아닙니까.

安선생은 우리일행의 안내인이자 통역을 맡은 재일동포입니다만 그때까지 우리는 일주일간을 동거동락하면서도 安선생과 金형이 친척지간임을 상상조차 못한채로 오랜시간 길동무를 해왔던 겁니다.

넓고도 좁은게 세상이라는 흔한말이 진실로 실감되는 순간이었읍니다.

동시에 인연이라는것을 생각했읍니다. 어떤 형태로든 내가 당신하고 맺은것도 인연에 속한다는걸 나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X氏.

당신의 출생지는 지난날 탄광으로유명했던 유우바리(夕張)입니다.

직접목격은 못했어도 어른들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당신은 일제하에서 강제로 끌려온 한국인 징용자들이 당신고향의 탄광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아마 아시리라믿습니다.

내가 崔노인의 도움을 받아 우류우가와(雨龍川)에서 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은 모를겁니다.

해방된지 40년이 가까와진 오늘날까지 고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이역땅을 떠도는 한국인의 넋들이었읍니다.

崔노인을 소개하지요.

그는 매우 소설적인 생애를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자신 젊은시절에 홋까이도에징용을 나와서 우류우가와의 댐공사에 투입되어 강제노역에 종사한바있고 당신의 일본인 동료인 스님과 그아들등과 함께 지금은 유골발굴에 미쳐있는 노인입니다.

당신의 고향 홋까이도 산하에 묻힌 연고자 없는 한국인들의 유골을 찾아내어 뒤늦게나마 안치 시키는 작업에 崔노인은 필생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읍니다.

배우지못했고 다소 주착이 없어보이는데다가 자신이 하는일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고집스럽게 밀고나가기때문에 그는 民團과 朝總聯으로부터 다같이 미친사람취급을 받고 있읍니다.

그러나 나는 작가인 입장에서 그를 매우 사랑스럽고 소중한 인물로 느꼈읍니다.

나는 崔노인한테서 당시의 한국인 징용자들이 받았던 인간이하의 대우, 연장자루로 맞아 죽은 사람들, 작업중에 50여m 댐아래로 떨어져 죽은 사람들, 탈출하다 붙잡혀 모진매질끝에 죽은 사람들, 영양실조와 악성질환으로 치료도못받고 죽은 사람들에 관한 생생한 증언을 들었읍니다.

金容玉, 21세.

최근에 발굴된 여섯구의 유골함들가운데서 얼핏 내눈에 들어온 이름입니다.

꽃다운 나이의 처녀였읍니다.

그런데 그녀는 정신대로 일본 땅에 끌려와서 남자들 틈에 섞여 힘든 노동을하다 죽었고 아직까지 연고자도 모르는채 뼛가루로 남아 고국땅에 묻히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읍니다.

근처에서 여관업을 하는 朴雨七씨가 늙은눈에 눈물을 그득 담은채 유골들을 이야기할때 실은 나도 울고 있었읍니다.

X氏.

나는 지금 당신의나라, 당신의민족을 비난하려는 의도만으로 이편지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는 여태껏 인연에 관해 긴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는중입니다.

그이야기는 아직 다끝나지 않았읍니다. 너무 밤이 깊었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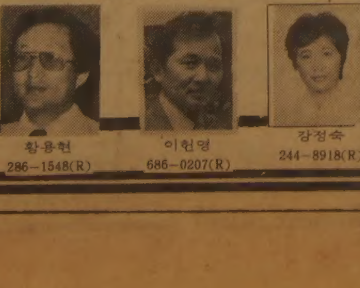
오늘은 이만 줄입니다.

尹興吉 올림

트로피 골프프로샵
무나미
트로피 상패 메달
각종 골프장비 세일
초보자 골프 지도해 드립니다.
캐다록에서 50% OFF
++ 트로피 & SPORTS ++
이 기 훈　☎ 298－3584
880 ELLESMERE RD. UNIT 1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HWANG)

★VARIETY STORE
주매상 $7,000, Rent $2,350, 4년, 5년옵션, 가격 $75,000
주매상 $11,000, Rent $1,149, 3년, 10년옵션, 가격 $155,000
주매상 $14,000, Rent $3,707, 7년, 10년옵션, 가격 $225,000
주매상 $5,500, Rent $1,970, 1년, 8년, 5년옵션, Asking $50,000
★상용건물
1)Bloor 한인상가에 위치한 4 Bedroom 아파트와 1000SQF되는 새로 단장된 빈 상점이며, 한인을 위한 사업장소로 최적, $55,000 다운, Asking $142,500
2)Dry Cleaning 상점이 있는 대형 3 Bedroom달린 벽돌건물 사업과 함께 매도, 빌딩 가격 $170,000,
★상용건물과 VARIETY
1)Variety 주매상 $7,000 1Bedroom 아파트4채, $200,000 다운, 가격 $430,000(건물+사업)
2)Variety 주매상 $11,000 1Bedroom 아파트5채 $150,000 다운, 가격 $400,000(건물+사업)
3)Grocery 주매상 $6,000 2 Bedroom 아파트2채, $70,000 다운, $255,000(건물+사업)
★TAVERN과 식당
1)년매상 $1,000,000, Rent $3,500, 3년, 10년옵션, $100,000 다운, 가격 $350,000(Building도 따로 팔수 있음)
2)년매상 $260,000, Rent $1,575, 1년, 5년옵션, $50,000 다운, 가격 $145,000
★BAKERY
Hunts Bakery: Shopping Center내에 새로 Open, 매상이 날로 증가, $40,000 다운, 가격 $135,000
★DRY CLEANING
년매상 $55,000, Rent $1,100, 5년+5년, 가격 $40,000
★DONUTS SHOP
1)주매상 $7,000, Rent $3,400, 4년, 15년옵션, 월 $5,000 Net로 파외수입 있음, 가격 $270,000
2)주매상 $8,000, Rent $2,500, 4년, 10년옵션, $150,000 다운, Asking $330,000
3)주6일(일요일 닫음), 하루12시간만 하는 Donut Shop, 년순수익 약 $50,000, 가격 $125,000
★SHOPPING MALL
1)Smoke & Gift Shop 6개월전 Open, 주매상 $4,000, 가격 $55,000
2)Gift Shop및 Hobby Claft Shop 몇개 있음.
★주택 1)Scarboro 방갈로, 4 Bedroom 지하실이 잘 꾸며짐, Fire Place, Sauna, Wet Bar, 가격 $124,900
2)고급주택 $100,000 $120,000 $150,000 $200,000 $250,000
※이 좋은 조건으로 North York, Don Mill 에리아에 많이 있으니 문의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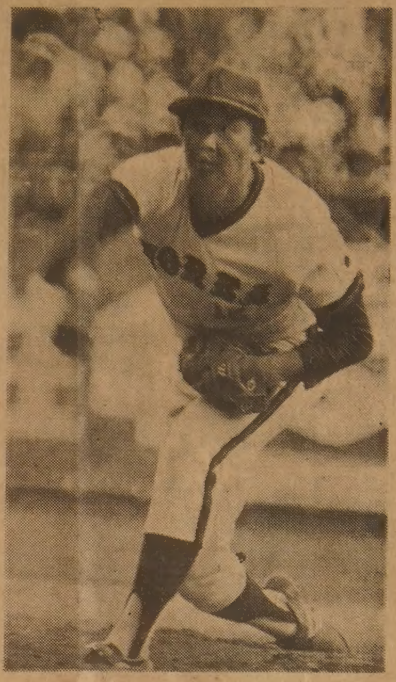
황용현 286－1548(R)　이헌영 686－0207(R)　강정숙 244－8918(R)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SUITE G5 DON MILLS
TEL(416)449－8644～5(B) · 286－1548(R) M3B 1Z3

블루어안경

◆ Zeiss(Marwite)
◆ Christian Dior
◆ Menrad
◆ 안경제조 · 수리 · 복사처방
◆ 안과의사알선 (No Appointment)
◆ Blue Cross, Metropolitan Life Vision Care지정 안경점.
◆ 정부 보조 안경지정 영업소
◆ Stock렌즈는 당일 서비스합니다.
※ 주2회 안과의사가 직접 내방하여 검진하오니 이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토요일 : 오후1시부터 4시30분까지
◈영업시간 : 월～목 9 : 30AM～7PM
금～ 9 : 30AM～8PM
토～ 9 : 30AM～6PM
635 BLOOR ST. W
☎ : 531－2236(B) 886－0722(R)

世界야구「宣銅烈 돌풍」 한국、우승高地 猛대시

「에러零」…방어율 0·79 鐵壁수비
宿敵日과 3승1패 공동先頭로
강호 美·自由中國연파… 컨디션 最上



◇"우리는 이긴다" 세계야구선수권대회에 돌풍을 일으키며 한국을 3승1패의 선두로 이끌어 올린 신예 투수 宣銅烈

세계야구 선수권대회 첫 우승의 꿈은 이루어 질것인가。뜻밖에 세계무대를 휩쓸고 있는「宣銅烈 新風」으로 한국은 강호 美國、자유중국을 연파하고 개막전보다 오히려 더밝은 전망을 갖게 되었다。

물고 물리는 혼전。한국과 일본은 이탈리아에、이탈리아는 네덜란드에、네덜란드는 호주에、호주는 미국에…。

한국이 이탈리아와의 서전에서 패배、참담했던 첫날과는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있다。대회는 전승팀도、전패팀도 없는 혼돈속에 빠져들어 남은 경기 하나하나가 모두 우승과 직결되는 중요한경기들이다。

그중에서도 주최국 한국과 숙명의 라이벌 일본이 3승1패의 공동선두로 최종일인 14일 폐막전서 대결케 되어있다。

한국과 일본의 공동선두는 야구가 힘뿐만 아니라 팀웍과 착실한 수비、그리고 지혜의 싸움임을 웅변적으로 말해준다。한국과 일본은 타격에서 캐나다、파나마등 美洲의 강타력에 견디지 못한다。

두팀을 선두로 이끌어올린것은 내·외야의 철벽같은 수비력、그리고 다채로운 변화구를 구사하는 마운드의 힘이다。

한국은 4게임을통해 20득점3실점으로 최소의 실점을 기록했고 유일하게실책없는 팀으로 남아있다。

정통과 신예宣銅烈은 미국과의 2차전에서 9회33타자 30타수 5안타 1회생타 2포볼 15탈삼진 1자책점을 기록、완투승으로 한국에 회생의 전기를 만들어주었으며자유중국과의 4차전에서는 9회31타자 31타수 5안타 탈삼진 8개로 완봉승、한국을 선두의 반석으로 이끌어 올렸다。

좌우무릎부근을 스치듯 빠져 들어오는 宣銅烈의쾌속구에 美國、自由中國의강타자들은 공격의 엄두를내지 못하고 물러섰다。한국의 4게임 팀방어율은 10개팀중 최고인 0·79。

개막전서 다소저조해 불안을 보이던 한국의 중심타선은 회를거듭할수록 자신을 되찾아 적시타로 승부의 찬스를 놓치지 않고있다。특히 9번 韓大化는 첫경기 9회말 대타로 나와 첫안타를 날린 이래 4게임에서 11타수 6안타를 날려 타율 5할4푼5리로 한국팀 타선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일본 역시 동양적인세기와 착실한 수비로 18득점에 한국 다음으로적은 9실점을 기록하고있다。컨트롤 좋은 투수 스즈끼는 宣銅烈의 0·50에 필적하는 0·56의 좋은 방어율을 보이고있으며 팀 방어율도 한국다음인 1·80。

그러나 한·일의 최종전에 앞서 한국은 무서운 파괴력을 가진 파나마、캐나다、도미니카、호주등의 지뢰밭을 살얼음 밟듯 조심스럽게 건느지 않으면 안된다。이들에게 얻어맞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큰 행운이 따른것이라고 밖에 볼수 없을 정도이다。」

歐美팀 선수들에겐 3루타가 없다 그라운드를 날아다니는 야수들의 투지와 무쇠같은 팔뚝으로 내리꽂는 호송구로 타구를 아예 담장밖으로 넘기든지 아니면 1·2루에서 간신히 세이프되든지 하는것이 이들과 맞선 타자들의 살길이다。

이탈리아와의 대전에서 타격 수위를 달리는 네덜란드의 3번 우르바너스는 6타수 6안타 6타점 3득점을 기록했다。홈런 2개、2루타 1개、단타 3개를 날렸으나 맹타에도불구하고 대회 첫 사이클히트의 대기록은 세우지 못했다。

【方錫絢기자】

◇팀성적비교<9일현재>

팀	승	패	득점	실점	타율	타점	홈런	실책	방어율
한국	3	1	20	3	·293	15	3	0	0·79
일본	3	1	18	9	·258	14	0	5	1·80
미국	3	2	27	14	·273	20	2	7	2·34
캐나다	3	2	37	46	·332	33	4	11	7·93
자유중국	2	2	21	20	·264	19	3	11	3·08
네덜란드	2	2	20	35	·278	18	3	7	7·68
이탈리아	2	3	22	27	·242	20	4	7	5·02
파나마	1	2	14	15	·300	9	0	2	4·00
도미니카	1	3	24	22	·263	21	6	12	3·71
호주	1	3	15	30	·287	13	1	13	3·97

◇타격10걸<9일현재>

이름	타수	안타	타점	타율
①우르바너스(화란)	17	11	6	·647
②카스티요(파나마)	11	6	2	·545
②韓大化(한국)	11	6	2	·545
④趙士強(자유중국)	16	8	4	·500
④張孝祚(한국)	12	6	3	·500
④림거(호주)	14	7	4	·500
⑦다운즈(캐나다)	19	9	5	·474
⑦오리지(이탈리아)	19	9	6	·474
⑨히킨슨(화란)	15	7	0	·467
⑩맥페일(캐나다)	24	11	4	·458

忠義、宅銀격파「上位」발돋움
실업축구 탱크 吳錫載 절묘한逆轉골…7位로
2-1

◇星武와 韓電이 미드필드서 치열한 볼 쟁탈전을 벌이고있다。

忠義(육군)가 住宅銀行을 격파하고 10위선을 넘어 7위로 진격했다。

忠義는 9일 孝昌구장서속행된 실업축구 코리안리그33일째 住宅銀과의대전서 2—1로승리、통산4승5무2패로 승점13을 획득、상위권돌진을 위한 토대를구축했다。

忠義는 이날 전반24분 住宅銀 朴彰和의기습공격을 당해선제골을 빼앗겼으나 곧반격을개시、전반42분 朴恒緖가 崔慶熙의 지원사격을받아 동점골을 얻었다。

후반들어 총공격을펼친 忠義는 20분께 문전 혼전중 중전차 吳錫載가 토킥으로 역전 결승골을 터트려 승리의 깃발을 올렸다。忠義는 90분간의 격전에서 슛12발을 퍼부어 2골을 올린 반면 住宅銀은 7번의 슛으로 1골을 성공시켰다。

한편 선두그룹의 企業銀行은 이날 하위팀 商業銀行과 맞서 전반4분 商銀의 金文奎에게 선제골을 내주었으나 전반12분 崔洪植의 수훈으로 동점골을 만들어 1—1무승부를 기록、6승5무2패(승점17)로 공동선두에 나설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제33일전적

기업은행 1 (1—1 0—0) 1 상업은행
충의 2 (1—1 1—0) 1 주택은행
한전 2 (2—0 0—0) 0 성무

◇실업축구 중간순위(9일현재)

순위	팀	승	무	패	승점
①	포철	8	2	2	18
	국민은	6	6	0	18
③	기업은	6	5	2	17
④	제일은	6	4	2	16
⑤	서울시	5	5	2	15
	대우	5	5	2	15
⑦	충의	4	5	2	13
⑧	현대자	5	2	5	12
	주택은	5	2	4	12
	조흥은	4	4	3	12
⑪	신탁은	4	3	4	11
	해룡	4	3	5	11
⑬	한전	2	6	5	10
⑭	성무	3	2	6	8
	한일은	2	4	6	8
⑯	철도	2	3	7	7
⑰	상업은	1	4	8	6
⑱	외환은	1	3	7	5

美코스모스蹴球팀 내달 한국에

대한축구협회는 9일 제9회 아시안게임에 참가할 대표축구팀의 전력강화및 최종전력평가를 위해 미국 코스모스팀을 10월하순께 초청、2차례의 경기를 갖기로 했다。

大學배구 오늘개막 仁荷·京畿大등참가

제10회 전국대학배구대회가 국내남자배구의 정상급라이벌팀인 仁荷大·京畿大등 7개팀이 참가한가운데 10일 장충체육관서 개막된다。

제5회 우수대학연맹전을 겸하고있는 이번 대회는 2개조로 나뉘어 예선리그를 펼친뒤 각조 상위2개팀이 결선에올라 토너먼트로 최종승자를 가리게된다。

◇대회일정
▲10일 12시=경기—충북、성균관—충남、조선—마산
▲11일 12시=조선—충북、충남—인하、경기—마산
▲12일 12시=마산—충북、성균관—인하、경기—조선
▲13일 1시=준결승전
▲14일 3시=결승전

仁川大가는곳엔 "파란"이
강호 慶熙꺾고 決勝진출
1-0
大學축구、成大도 작년覇者 東亞大에역전승

【釜山】창단 6개월의 仁川大가 결승전에진출、成均館大와 9일 우승을 다투게됐다。

仁川大는 9일 九德경기장에서 벌어진 제36회 전국대학축구선수권대회 6일째 준결승전서 강호慶熙大를 맞아 전반 28분께얻은 선제골을끝까지지켜 1—0으로 승리했다。姜萬永이 페널티에리어 왼쪽에서 수비1명을 제치고 문전가운데로 볼을 띄워주자 장신의 CF 金永春(183㎝)이 뛰어들며 헤딩슛、결승골을 만들었다。

이로써 仁川大는 춘계연맹전 준우승에 이어 두번째로 전국대회 결승전에 올랐다。

한편 成均館大는 지난해 우승팀 東亞大에2—1로 역전승、올해들어 처음 결승전에 올랐다。

成均館大는 전반에 東亞의 尹鍾鉉에게 헤딩골로 1점을 빼앗겼으나 후반들어 林告石과 劉在永이 각각 1골씩을 얻어 게임을 역전시켰다。

◇제6일전적 ▲준결승전
인천대학 1 (1—0 0—0) 0 경희대학
성균관대 2 (0—1 2—0) 1 동아대학

體典 聖火奉送코스 올해부터 全國일주

【聯合】聖火봉송코스가 오는10월의 제63회전국체전부터 전국일주로 바뀐다。

대한체육회는 88년 서울올림픽과 86년아시안게임 서울개최를 앞두고 전국민에 스포츠의식을 고취시키기위해 제63회전국체전부터 종래의 단일봉송코스에서 전국을 일주하는 2개봉송코스로 변경 채택키로했다。

불가리아 이그나토바孃 멋진「후프」

장래 가장 희망적인 스포츠의 하나로 기대되고있는 신종목 리듬체조의 묘기。84년 로스앤젤레스·올림픽에 처음채택되는 이 리듬체조는 후프、로프、곤봉、리본등 소도구를이용、무용의 아름다움과 신체적연기의 정확성으로 채점된다。사진은 日本에원정、워퀄·컵대회서 4종목을 휩쓴 불가리아대표선수 리리아·이그나토바의 후프연기。【外紙】

黃金사자賞「사건의 眞相」西獨
베니스映畵祭 우수작엔 和의「물맛」등

제39회 베니스영화제에서 서독 빔·벤더스감독이 연출한 흑백영화「사건의 진상」이 최우수작품상인 황금사자상을 차지했다。

우수작품상은 네덜란드의「물맛」(감독 오를로·선케)과 이탈리아의「사이어펜」(감독 루치아노·오르도시오)이 각각 수상했다。최우수남우상은 소련의 미카일·울자노프가 영화「私生活」로、그리고 심사위원특별상은「입페러티브」를 연출한 폴란드의 크르즈스토프·잔우시감독에게 돌아갔다。【베니스聯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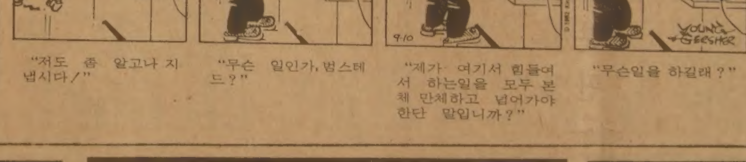
朴玲愛원작「탄야」 뉴욕現地 촬영마쳐

여류작가 朴玲愛씨의 원작소설을 영화화한「탄야」(감독 盧世翰)의 촬영이 美國뉴욕의 로케이션을 마지막으로 모두 끝났다。

「탄야」는 지성과 미모를 갖춘 여대생의 애정모럴을통해 인간의 본능을 파헤친 작품。전체의 50%정도가 뉴욕을 배경으로 하고있어 촬영반은 지난8월1일 미국으로 건너가 1개월간 촬영을하고 귀국했다。뉴욕의 맨해턴과 펜실베이니아주 포코너산장지대에서 촬영했는데 해외로케이션이어서 평작의 2배에 달하는 제작비가 투입됐다。

주간女性

블론디 딘·영作 本社特約·連載漫畵



"저도 좀 알고나 지냅시다!" "무슨 일인가, 범스테드?" "제가 여기서 힘들여서 하는일을 모두 본체 만체하고 넘어가야 한단 말입니까?" "무슨일을 하길래?"

한국 자유중국도完封 6-0
8회 韓大化 좌월 솔로홈런

한국은 8일 잠실구장에서 속행된 제27회 세계선수권대회 자유중국과의대전서 우완 강속구 宣銅烈의역투로 자유중국타봉을 산발 5안타、탈삼진 8개로 완봉하는 한편 적실4개에 편승、6—0으로 완승했다。

자유중국의 수비범실을 놓치지않고 적시타를터뜨려 4회까지 4—0의 리드를잡은 한국은 7회초 3번 李海昌의투수 강습내야안타와 4번 張孝祚의 좌월3루타로1점、8회초 1死후 9번 韓大化의 좌월솔로 홈런으로 1점을 추가、승리를 확정지었다。

◇제5일 전적

팀	1	2	3	4	5	6	7	8	9	계
이탈리아	0	0	0	0	4	0	2	0	0	6
캐나다	1	0	0	0	2	4	2	1	×	10

▲홈런=오리찌(5회·3점) 로베로(8회·2점·이상 이탈리아) 벌티뷰드(7회·2점·캐나다) ▲안타=이탈리아10—16캐나다

팀	1	2	3	4	5	6	7	8	9	계
한국	1	0	1	2	0	0	1	1	0	6
자유중국	0	0	0	0	0	0	0	0	0	0

▲한국투수=宣銅烈 포수=沈載元 ▲자유중국투수=莊勝雄、劉家喬(3회)、葉福榮(7회) 포수=曾智偵、涂忠勇(9회) ▲안타=한국10—5자유중국 ▲홈런=韓大化(8회·한국)

만드리코바 準決에 全美오픈테니스

【뉴욕AP聯合】체코슬로바키아의 하나·만드리코바(20)는 8일 이곳에서 속개된 全美오픈테니스선수권대회 여자단식 준준결승에서 전년도 챔피언 美國의 트레이시·오스틴(19)을 2—1(4—6、6—4、6—4)로 물리치고 준결승전에진출했다。

고삐풀린 白仁天 방망이
만루·솔로 홈런 2發
對롯데戰서

8일 大邱시민운동장에서 벌어진 프로야구 OB—三星戰서 OB베어스는 역전을거듭하는 접전끝에 3—2로신승、통산20승7패를 기록하고 3일만에 선두자리를 되찾았다。

한편 光州경기서도 해태는 7회초 金鍾模의 투런홈런으로 三美에 3—2역전승을거뒀다。

한편 MBC는 釜山서 벌어진 홈팀 롯데와의 경기서 白仁天의 만루、솔로등 홈런2개에 힘입어 10—7로 승리했다。

5게임 출전정지끝에 이날 처음 출전한 白仁天은 그동안의 恨을 풀려는듯 마구 방망이를 휘둘러 대 4타수 3안타에 타점6、홈런2개를 기록하고 승리에 수훈을 세웠다。

이날의 홈런 2개로 白仁天은 홈런레이스에서 도합16개로 金準桓(해태·15) 金奉淵(해태·14)을 제치고 선두에 나섰다。

◇후기 중간성적(8일현재)

팀	승	패	승률
①OB	20	7	·741
②삼성	22	8	·733
③MBC	17	12	·586
④롯데	13	12	·520
⑤해태	9	17	·346
⑥삼미	2	27	·069

◇8일전적

◆大邱

팀	1	2	3	4	5	6	7	8	9	계
OB	0	0	0	0	2	0	0	1	0	3
삼성	0	0	0	1	0	0	1	0	0	2

◆光州

팀	1	2	3	4	5	6	7	8	9	계
해태	0	1	0	0	0	0	2	0	0	3
삼미	1	0	0	0	0	0	1	0	0	2

▲홈런=金鍾模(7회·2점·해태)

◆釜山

팀	1	2	3	4	5	6	7	8	9	계
MBC	5	2	0	0	0	0	2	0	1	10
롯데	0	0	0	1	0	1	2	0	3	7

▲홈런=白仁天(1회 만루、9회·MBC)

大會新 8개
전국사격대회

제7회 육군참모총장기쟁탈 전국사격대회 3일째경기가 9일 泰陵종합사격장서 속행、트랩에서 朴哲承(지도단)은 1백93점으로 대회신기록을 세웠다。

또한 여고공기권총 단체서 西歸浦女高와 大田女商은 1천79、1천74점으로 각각 대회신기록을 세웠으며 스키트서 李承均(용호)은 1백89점으로 대회타이를 세웠다。

3일째 경기선 대회신 8、대회 타이 1개가 나왔다。

◇제3일기록
▲남대 공기소총단체=①한체대 2、235 ▲동개인=①곽재남(한체대)572 ②명재화(인하대)571(대회신) ▲남고 공기권총 단체=①인천체대 1、083 ▲동개인=①김태호(포항고)370 ▲여고 공기권총단체=①서귀포 1、079 ②대전여상 1、074(이상 대회신) ▲동개인=①허영심(서귀포)368 ②장인자(제천고)368 ③최옥력(대전여상)368(이상대회신) ▲소구경 3자세=①서창운(지도단)1、151 ▲남고 공기 소총=①우경식(대전공)381(대회신) ▲트랩=①박철승(지도단)193(대회신) ▲스키트=①이승균(용호)189(대회타이)

CENTRAL CANADA COLLEGE

특수영어프로그램

◎ 고등학교 11학년~13학년을 위한 영어교육을 위한 신청
◎ 학기는 매년 1월, 6월, 8월에 시작함.
◎ 컴퓨터·싸이언스및 제2외국어로서 영어교육을 위한 훌륭한 선생 보유
◎ 학생들의 대학교입학을 위한 보조 역활
◎ 외국학생들의 비자신청 역활

◎ 자세한 사항은 444—1136 MR. WAN 또는 윌리암

사무실시간(월~금)오전9시~오후5시
60 Park Lane Circle (베이뷰×로렌스)
☎ : 444—1136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CTRA, PARK·AVENUE, 벤트러, USED·CAR

Auto Mechanic License, Auto Body Licence 소유
Chassis Frame, Front End Alingnment Certificate 소유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Best Price
* Best After Service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조 의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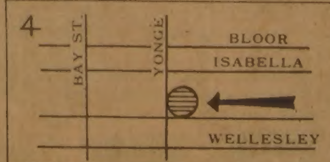
江戶前 太鼓寿司

어제 오신 분이 또 오십니다

쓰시(김밥) 전문

일본음식중 김밥만 전문으로 하고 있읍니다.

밤 12시까지 OPEN하오니 일차 왕림해 주십시오.



TAIKO SUSHI
607A YONGE ST.
☎ : 921—6408

한글학교

학생모집 공고

쇼햄한글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한글학교 학생모집을 하고 있읍니다.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소 : 35 Shoreham Dr. (Jane × Shoreham Dr.) York대학 뒷문 입구
등록시일 : 1982년9월14일 오후6시30분~9시
모집학급 : 초·중·고급및 태권도
수업일시 : 1982년9월21(화) 오후6시30분~9시, 매주1회
연 락 처 : 663—1178 박 승 낙

쇼햄한글학교
교장 박 승 낙

修正급피치 내년부터 새教科書사용

民族의 正體性선명히

國史교육制度 전면再改編

歷史학자養成·문헌발굴機構신설
편협된 考證탈피 哲學·사상注入
民族저항史 부각·植民觀등 버려

국사교육제도가 전면 재개편된다. 정부는 9일 지금까지의 국사교육이 지나치게 편협된 고증에 치중, 소극적인 국사교육으로 일관돼왔다고 보아 새로운 민족적 정체성(正體性)을 확립하기 위한 국사교육으로 전환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위해 우선 각급학교의 국사 교과서를 비롯 역사관계교과서를 대대적으로 수정, 새로운 교과서를 만들어 내년 신학기부터 각급학교에서 사용케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민족사관에 입각한 국사학(國史學) 정립을위해 ▲전문가(역사학사)를 양성하고 이들이 자유롭게 연구할수있도록 하는 지원기구와 ▲새로운 역사발굴과 문헌사료를 체계적으로 재정리, 보급하는 기구의 신설등을 골자로한 국사학수립 방안을 확정했다.

문교부의 교과서 수정방침은 그동안 일본역사교과서왜곡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각급학교의 역사교과서를 정밀분석해온결과 학술적으로도 수정이 불가피한 부분이 발견됐고 이보다 더 우리 역사교과서의 서술방법에서 민족적주체성이 결여된 부분이 지나치게 많다는 판단에따라 이뤄진것이다.

문교부는 해마다 9~11월사이에 교과서수정작업을 해오면서 기존교과서의 수정부분을 색인, 정정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왔는데 이번처럼 전면수정을가해 새로운 교과서를 만들어보급하는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의국사교과서는 지난 3월1일 개편, 발행된것으로 과거의것 보다는 훨씬 민족사관이 뚜렷해져있으나 정밀검토결과 미흡한것으로 판단됐다는 것이다.

문교부는 이에따라 현재 수정작업에 급피치를 올리고있으며 새로운교과서제작에 필요한 예산을 이미 마련해놓고있다.

문교부 관계자는 현재사용중인 역사교과서가 전체의서술방법에서 민족사관의 바탕이 결여되어있음이 인정됐다고 지적하고 중학교용 국사교과서(上)를 예로들었다.

중학교국사교과서14페이지(고조선편)에는 『중국 동북부지방에서 철기문화를 사용하던 사람들가운데 많은사람들이 이동해 왔는데 이중 위만(衛滿)은 점차 세력을 길러 기원전 2세기에는 준왕을 내쫓고 왕이 되었다. 그리하여 고조선은 이들에의해 다스려졌고 이때부터 철기문화는 우리나라전역에 퍼져갔다…』라는식의 서술 방법을 채택하는등 우리의역사와 문화가 전반적으로 강대국(중국내륙)의 정치 사회 문화를 기반으로 발전한것처럼 기술되어 나가고있다는것.

이관계자는 이같은 기술방법때문에 학생들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주체성이 없는 민족으로 잘못인식할가능성이있다고 지적했다.

문교부는 이밖에도 교과서에 나타난우리의역사가 식민사관의영향과입김이짙은 왕조(王朝)사관에의해 수집 선발된문헌과 자료를통한 문헌 고증사학(考證史學)의 방법에서 기술돼 역사적사실이나 사건을 연대별로 나열하고 그것을암기시키게 하는것으로 그쳐 철학과사상을가르치는데 미약하다고 지적하고 한국인의 민족적정체감을 확립시키고 학생들에게 긍지와신념을 심어주기에는 부적당하다고 판단된다고밝혔다.

문교부는 또 기존 역사학회가 새로운 젊은 학자들의 등장으로 민족사관에 입각한 사학정립에 큰기여를 해왔으나 적극적인 국사교육에는미흡, 새로운 국사학정립이 시급하다는 판단아래 신진학자들이 시급하며 이들에 대한 정부적차원의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문교부는 새로운 고증발굴은 지금까지 역사학자들이등한시해온 민족의 저항사에관한 사료와 문헌에 중점을 두기로했다.【李鍾九기자】

◇영그는 가을 가을이 알알이 영근다. 영동지방의 밤이 예년보다 10%나 증수되는 대풍작을 이루었다。그러나 가격이 떨어져 농민들은 울상을 짓고있다는 소식이다。【江陵=聯合】

先祖가 쌓은城郭 放置하고 倭軍이 만든城을 史蹟地로

慶南大조사반 蔚山·巨濟·釜山등서 밝혀

【馬山】임진왜란때 왜군이 방어용으로쌓은 성곽진는 국가지정 사적지로 보호되고있으나 당시 우리선조들이 축조한 성들은 사적지·문화재로 지정조차안된채 황폐해가고있다.

慶南大사회과학조사반에 따르면 국가지정사적 제9호인 蔚山市鶴城, 제53호인 義昌郡熊東面安骨里城, 제54호 梁山郡西生浦城등 8개의 성곽은 임진왜란당시 왜군이직접 또는 아군포로나 주민을 동원해 축성한 것이다.

이들 8개城은 일제치하인 1930년대 조선총독부가 사적지로 지정한것인데 지난 63년1월21일 문화재보호법에따라 재지정돼 그대로 보호되고있다.

慶南義昌郡熊東面安骨里城의 경우 宣祖25년 壬辰倭亂초기에 倭軍이 이곳을 점령, 축성한 길이 1㎞ 높이 7~4m의 城으로 지난1938년5월 국가사적지로 지정됐으며 蔚山市鶴城洞소재 鶴城도 1935년에 사적지로지정됐었으나 지금까지 한번도 재검토없이 그대로 사적지로 재지정, 보호하고 있어 이에대한 전반적인 재평가가 요구되고있다.

그러나 당시 삼도수군통제영(三道水軍統制營)아래 방어용등으로 세워진 巨濟古縣城을 비롯, 鎭海熊川薺浦鎭城·巨濟玉浦城·知世浦城·釜山多大浦등지의 24개城중 釜山左水營만이 釜山市기념물로 지정돼있을뿐 나머지는 사적지나 기념물로도 지정되지 않은채 방치돼있어 일부城은 흔적조차 찾아볼수 없는 실정이다.

조사반은 특히 왜군들이축조한 城은 보존상태가 비교적 좋으나 우리 선조들이 지은 城은 당시 격전으로 손상을 입은것을 그대로 방치해 보존상태가 엉망이며 일부지역에서는 주민들에의해 훼손되는등 보호대책이 전혀 안돼있다고 밝혔다.

朴교수는 최근들어 日本의 역사교과서 왜곡사실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전개되고있는 克日운동의 정신적 지주로삼기위해서라도 우리 선조들이 만든 城을 복구하여 보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聯】

밀가루로 淸心丸 제조한 華僑구속

서울西部경찰서는 9일 화교 左長遠씨(29·서울西大門區北加佐2洞1의50)를 보건범죄단속에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左씨는 지난7월20일부터 자기집에서 밀가루등으로 가짜 우황청심환을 만들어 南大門시장상인 朴모씨로부터산北京(同仁堂)이라고쓴 겉포장지로 포장해 6알에 5천원씩받고 지금까지 2천4백여개(싯가1백45만여원)를 시중에 팔아왔다는것.

陸軍 3士졸업식 大統領賞 韓百洙소위

육군제3사관학교19기졸업 및 임관식이 9일하오2시 동교충성연병장에서 全斗煥대통령을 비롯 尹誠敏국방장관, 黃永時육참총장등 군고위장성과 졸업생 가족·친지등이 참석한가운데 거행됐다.

이날 임관식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은 경북출신 韓百洙소위(22·서울철도고)가 차지했고 국무총리상은 金在勳(20·釜山해광고) 국방장관상은 鄭鎭國(22·검정고시) 육참총장상은 吳榮哲(23·濟州표선상고) 학교장상은 崔永燮(21·釜山배정고)소위가 각각 받았다.

낙찰契로 7억 詐欺

架空人만들어 商人 울려 女人구속

서울西部경찰서는 9일 南大門시장상인들을 상대로 거액의 낙찰계를 조직, 계금을 가로챈 尹炳歡씨(45·여·서울恩平區新寺洞20의16)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尹씨는 지난80년10월18일 서울 中區會賢洞 장안옥에서 계원25명으로 3천만원짜리 낙찰계를 조직한뒤 가공인이 낙찰한것처럼 속이거나 곗돈의 일부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높은이자를 놔 계돈을 부어 준다고속여 50여명으로부터 7억여원을 가로 챘다는것.

10여년전 南大門시장에서 의류도매상을 한것을이용, 계원을끌어들인 尹씨는 이돈으로 사채를 갚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써왔다.

尹씨는 계를 처음 조직할때에는 계원들을 고급호텔로 초대해 호감을 사기도했는데 계원과 계주를 직결시켜 계원끼리는 서로 알지 못하게 해왔다.

경찰 조사결과 尹씨가 조직한 계는 3천만원짜리 7개, 2천1백만원짜리 2개로 피해자만 2백여명이 넘었는데 이외에도 尹씨가 東大門상인들을 상대로 계주를 해왔다는 고소인들의 말에따라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고교생이 飮毒자살

복잡한 家族관계悲觀 유서

8일하오9시30분께 서울 城東區泰天6洞1682의7 朴鍾勳씨(46·S종합건설해외담당부사장) 집2층 건넌방에서 朴씨의2남鉉상군(16·Y고교2년)이 극약을 마시고 신음중인것을 朴씨집승용차운전사 金榮周씨(21·서울城北區石串1洞45의3)가 발견,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경찰은 숨진 朴군의일기장에서『어쩌면 이날이 나의 마지막날이 될지도 모른다. 족보, 족보의가정, 족보의세계…평생소원이던 무족보의 세계에 도착하도록 신이여 용기를 주소서』라는 문구를 발견, 朴군이 복잡한 가족관계를 비관, 자살한것이 아닌가 보고있다.

한편 숨진 朴군의 집에는 朴군의 이모(37)와 외삼촌(29)이 지난71년 12월6일자로 朴씨의 양자녀로 입적, 이모와 외삼촌이 朴군과 형제간처럼 돼있다가 77년4월15일 이들이 분가하면서 파양되는등 족보가 복잡하다.

일본腦炎예방 異色주장

돼지에 接種하자

慶北大 卓硏彬교수

副作用없고 全面실시로 완전 退治효과

【大邱】일본뇌염의 예방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실시하고 있는 인체접종보다 병원체의 중간숙주인 돼지에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도 더 크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慶北大 卓硏彬교수(수의학)는 9일 日本뇌염바이러스의 중간숙주인 돼지에 전면예방접종을 실시함으로써 인체에 전염을 예방하고 돼지도 보호하는 2중효과를 거둘수있다고 주장, 이를 日本뇌염퇴치시책으로 법제화할것을 보건당국에 건의했다.

卓교수는 돼지예방접종은 예방비율이 거의1백%이기때문에 완전퇴치가 가능하고 인체접종보다 전면실시가 쉬울뿐아니라 접종비용도 보건소에서 인체에 주사할경우 1인당 약품비가 2천5백50원, 병원에서는 5백원인데 비해 돼지 1마리당 접종비는 4백80원에 불과하다는것이다.【聯】

寒溪嶺 중턱서 트럭굴러 4명死傷

【東草】9일새벽 0시30분께 강원도 襄陽郡 西面五加2里 한계령중턱 산길에서속초로가던 내일목재소속 인천7마3111호4·5톤트럭(운전사 박청수·34)이 브레이크 파열을 일으키며 높이 50m 언덕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이사고로 트럭에 타고있던 이종섭씨(54·강원도 洪川郡洪川邑蓮峰里259)와김병두씨(30·同)등 2명이 죽고 운전사 朴씨와 김형배씨(48·仁川市南區鶴翼洞564)등 2명은 중상을 입었다.【聯】

美文化院 방화사건 항소심 大邱高法서

【大邱】釜山미문화원방화사건 관련피고인 16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가 大邱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盧成원 郭宗哲 朴柱奉판사)로 9일 결정됐다.

한편 이 사건의 관여 검사는 대구고검 공안부 金英俊검사로 결정됐다.【聯】

颱風被害 대책마련 시멘트·철근등지원

【東海】강원도東海시는 태풍엘리스로 파손및 유실된 농로·농업용수시설·소교량등에 대한 복구계획을 마련, 시멘트·철근등 복구자재를 지원하고 인력은 새마을사업의 하나로 충당하도록 했다.

9일 東海시에 따르면 복구사업은 소하천 59건3천3백85m를 비롯, 도로11건3천6백36m, 교량14건 1백52m, 농업용수시설 9건2백20m, 농경지매몰 3건2만4천3백평등과 이밖에8건등 모두 1백4건인데 복구에 소요되는 시멘트 1만3천4백19부대와 철근 1만1천8백17톤은 자재로 지원하고 소요인원 1만5천9백61명은 부락단위 새마을사업으로 동원한다는 것이다.

간이설계가 끝나는 이달중순께부터 부락단위로 복구공사에 일제히 착수, 연내에완공할 계획이다.【聯】

大田·沃川서 擬似뇌염 女中生2명 또숨져

【沃川】의사뇌염증세로 大田을지병원과 충남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沃川靑山여중1년 김경화양(13)과 靑山여중 2년 전혜숙양(15)이 8일하오 숨졌다.【聯】

上水道지하수 개발 天安 老朽管교체도

【天安】天安시는 여름철이면 겪어오던 고질적인 식수난을 해소하기위해 우선1억5천만원을 들여 하루2천톤의 식수를 끌어올릴수 있는 상수도지하수를 개발, 물걱정을 덜기로했다.

시는 상수도사정이 아주나쁜 天安市院城洞에 하루5백톤을 취수할수있는 지하수1곳을, 그리고 天安시 상수도 수원지인 天原郡豊歲面南館里 수원지 취수장지역 4개소에서 지하수를 개발, 2천톤의 물을 天安시민에게 추가 공급키로 했다.【聯】

慶山 林堂洞 고분群 가야古墳으로 판명

嶺南大 학술조사단

【慶山=金周彦기자】고군들에게 귀중한유물을 도굴당했던 경북慶山郡慶山邑林堂洞고분군이 嶺南大학술조사단의 발굴결과 기록이부족한가야의 신비를 풀어줄 3세기께 가야고분으로 밝혀졌다.

9일 조사단장 鄭永和박사는『林堂洞고분군이 무덤과 유물양식으로 미루어 가야에서 신라로넘어가는 과정의 가야고분으로추정된다고 밝히고 지금까지 金海,高靈에만 국한되어있던 것으로 보았던 가야의 판도가 慶山까지 미쳤던 새 사실을 알려주는 귀중한 역사자료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이고분구 2호분은 암반에 구멍을파 무덤을 만들고 위에 커다란 뚜껑돌 3개를 올려놓은 독특한 양식으로 다른 가야고분과 같이 主室과 副室을 따로 설치해놓은게특색. 이런무덤양식은이지역에서처음나온것으로 학계의주목을받고있다.

「뇌염 여름」 保社部 방역과장 申碩舒씨

모기와의 「血戰」…숫자와 씨름

온 여름을 뇌염모기와 싸워온 보사부 방역과장 申碩舒씨(사진)가 농수산부에 근무하는 선배에게 전화를 걸어 『풍년 뒤끝에 냉해가 없어야겠지요』라고 말하면 저쪽에서는 『글쎄 우선 뇌염이 문제아닌가』라고 서로 남의 걱정부터 해준다고 한다.

더위가 빨리 빠져나가야 뇌염모기가 맥을 못쓸테지만 냉해는 1년 농사를 결정적으로 망칠 수가 있어 이런 선(禪)문답 같은 통화가 오가는 것이다.

뇌염이 유난히도 극성을 부린 금년 여름은 방역행정을 질타하는 記事도 많았다. 申과장은 사무실에 기자가 나타나면 『나 죽이는 사람 또 왔다』고 엄살을 떤다.

뇌염뿐 아니라 장티푸스, 이질, 홍역등 온갖 法定 전염병들은 모두 그의 소관이다. 전국에 깔린 1만4천여개소 모니터 지점으로부터 올라오는 질병발생보고를 점수, 분석하는 것으로 그의 일과는 시작된다.

방역의 요체는 두말할것 없이 조기발견이다. 손놓림이 늦으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꼴이 된다고 그는 설명한다.

뇌염방역이 어려운 것은 행정의 대상이 사람인 동시에 모기라는데 있다. 사람에게는 예방주사를 맞혀야하고 모기에는 살충제를 뿌려야하지만 그 어느쪽도 쉬운일은 아니다. 보사부의 한정된 방역예산으로는 전국어린이들에게 모두 무료접종을 해줄도리가 없고 살충제로 전국 모기를 멸종시킨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다.

그를 속상하게하는 것은 아마도「숫자」가 될것이다. 금년에 뇌염발병자 수가 많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의증환자를 포함한 숫자를 공개함으로써 예년에 비해 더욱 늘어난 것처럼 보일수도있다는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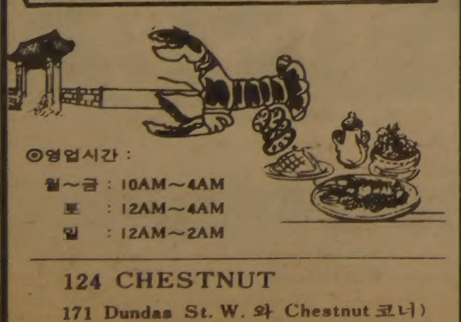
완벽한 방역은 국민의 경각심과 신고정신이 없이는 불가능한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는『숫자를 밝혀서 신문이 나를 질타하더라도 국민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모기에 물리지 않게된다면 다행한 일이 아니겠는가』고 말한다. 뇌염모기는 9월중순이 지나면 맥을못춘다. 이제 「며칠」이 남아있지만 방심할수가 없다.

취재를 위해 그를 추궁하고 돌아온날은 어린것들이 자는방에 모기가 있는지를 서너번이나 점검하게 된다.【金 薰기자】

결혼예물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팔지, 목거리, 목거리
B536-1898
H245-3539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 치과의사 일동

意安飯店
의안반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시까지 영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했읍니다.



◎영업시간:
월~금 : 10AM~4AM
토 : 12AM~4AM
일 : 12AM~2A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 와 Chestnut 코너)
☎ : 977-9734

Special Offer
WORLD BOOK
★어린이를 위한
SPECIAL VOLUME
"CHILD CRAFT"
★29,000이상의 사진, 그림, 지도및 차트포함

22권 World Book
문의처 : 낮 533-2361 Mrs. 김
밤 242-5774

털코-트 원하십니까?
Paul Magder FURS
※밍크외 각종 털제품 3000점이상을 준비하고 있읍니다.
※한국말을 하는 점원이 여러분을 도와 드립니다.
※ 스파다이나 208번지에는 지점이 있읍니다.
※언제나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을 보시고 있읍니다.
신품 $150부터
중고 $99부터
※ 보험 세타 스토레이지 (차게 보관), 수리 추레이드인(Trade-ins)
※ 밍크외 각종 털코-트, 샤켈 모자 칼라 스톨 남성모피

〈영업시간〉
12:00~5:00 일요일
9:00~6:00 월, 화, 수, 토
9:00~9:00 목, 금
202+208 SPADINA AVE.
Mrs. 전
☎ : 363-6077

맛사지
DIXIE HEALTH STUDIO

Whirlpool * Sauna
Gym * Massage
Luxurious Surroundings
OPEN 10 AM-1 AM
5170 Dixie Rd.
(near airport)
MISSISSAUGA
624-8822

쿠바、스포츠통해「友邦」만든다

메달에 執着…對外宣傳용으로 한몫

인구가 9백만명뿐인 카리브해의 조그만 섬나라 쿠바가 야구、배구 뿐아니라 각종 스포츠기본종목에서 커다란 힘을 발휘하고 있다。

지난달 3천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중미·카리브해연안국 대회서도 쿠바는 메달을 휩쓸었다。

쿠바가 금메달 2백83개중 1백73개를 획득한반면 멕시코는 29개、베네수엘라가 19개를 얻었을뿐 어느 나라도 금메달을 10개이상 따내지 못했다。

어째서 쿠바의 스포츠가 이렇게 강할수 있을까。

그 이유중 하나는 쿠바가 스포츠의 강국이 되는것이 메달을 따내는것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커다란 선전효과가 있다는것을 의식하고 있기때문이다。

선수양성에 막대한 豫算投入

11개 스포츠學校서 집중強訓

그래서 쿠바는 대중들의스포츠를 촉진하고 또 올림픽 입상이 가능한 선수들을 선발하기 위해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고있다。

쿠바의 스포츠와교육을 받고 있는 호세·라몬·페르난데즈부수상은『이번대회의 결과가 괜찮은것 같다』쿠바가 이런 성공을 거둔것은 광범위한 스포츠프로그램덕분』이라고 말했다。

쿠바의 스포츠프로그램은 총 교육예산 15억달러중 1억달러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2백만명의 청소년들이 학교、지역、국가단위의 경기에참가해 23개종목서 실력을 겨루고 있다。

국가대표팀들의 70%는 매년말 개최되는 전국올림픽에 참여한 1만5천명의 선수중에서 나오고있다。

이외에 쿠바에는 11개의스포츠학교가 있어 특수한 재능을 가진 청소년들을 집중 훈련시킨다。

수영의경우 11~12세부터 운동을 시작하나 빠르면8세 이전에도 훈련을 시킨다。

그러나 쿠바체육의 목적은 페르난데즈부수상이 밝히듯 국민건강과 규율때문만이 아니라 우방을 만드는 방편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지 스포츠트레이너들을 아프리카등 미개발국들에 대거 파견하고 있다。

쿠바는 특히 스포츠에서 정치적인 냄새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것이 눈에 띈다。

평소 3~4시간씩 정치적 연설을 즐기곤하는 카스트로 대통령도 이번 중미·카리브해연안국대회서는 12단어의 간단한 공식개회선언만을 하고는 자리에 앉았다。

쿠바는 또 이대회서 기존 경기시설에 1천5백만달러의 예비비만을 지출、가난한 나라들도 큰경기를 소화할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도했다。

선수들은 아바나시 교외의 직업학교에 묵으며 시내를 자유롭게 여행했는데 푸에르토리코의 올림벤시아선수는 쿠바선수의 집에 초대받았던 일을 기뻐하며 자신이 묵었던 직업학교의 시설과규율、조직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발문객이라도 항상신분증을 소지해야 하는점이나 『다른나라같으면 식권을 잃어버리더라도 사정얘기를 하면 통하나 이곳은 달랐다』는 점등을 지적하고 이것이야말로 규율을 만들어내는방법이라고 감탄했다。

페르난데즈부수상역시 조직의 역할을 강조하며『스포츠의 집단참여는 질서의식과 희생정신 자제를 키우기때문에 국민들에게도 유익한것』이라고 말한다。【아바나AP=聯合】

한국일보 533-2361

「東西의 육체미」紙上경연

아놀드·슈발제네거。다섯차례 미스터·유니버스、여섯차례 미스터·올림피아의 타이틀을 차지한 미국의 보디빌딩 1인자。

그의 닦여진 쇠줄같은근육은 두려움 마저준다、많은 육체미 전문가들은 비틀즈가 로큰롤에 한 영향을주었다면 슈발제네거는 바로 보디빌딩에 큰영향을 주었다고 평한다、그는 세계적인근육가가 되기위해선『확신、적극적인 정신자세、정직한 노력이란 세가지 원칙을 지키며 끊임없이 훈련해야한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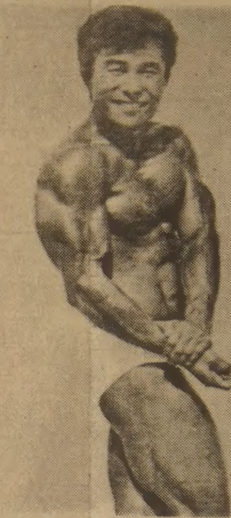
제18회 아시아 보디빌딩선수권대회(日本) 라이트급서 우승、아시아 최고의 남성미를 과시한 朴永哲(27)。朴은 이 대회서 가장 우수한 선수에게 주는「근육상」까지 아울러 수상했다。

76년 처음 미스터·코리아로 뽑힌 朴永哲은 척추 부상으로 육체미를 그만두었는데 부상 완치와 함께 재기、작년 아시아보디빌딩 선수권대회 (말레이지아) 서 2위에 입상한바 있다。

착실·정신자세·정직한 노력을

◇미국의 보디빌딩의 일인자 아놀드·슈발제네거。

아세아최고 男性美…「근육」일품



◇한국의 보디빌더 朴永哲。

◇보스턴근교 록포트한 해변가를 아들과함께 달리고 있는 김여사。

「잃어버린 歷史」…16년만에 되찾아

美 최초 女마라토너는 김女史

66년 보스턴 大會서 첫完走 3시간30분기록

「67년 스윗저 1등」 TV대담쇼서 眞實 밝혀

美國에서 최초로 마라톤을 완주한 여자는 누구일까? 올 4월19일 애국자의 날을 기념해 86번째 열리는 보스턴·마라톤대회 골인을 기다리며 설치된 WBZ·TV 대담쇼에서 여지껏 잘못된역사는 바로 잡아졌다。

◇로베르타·김여사

보스턴 대회에서 여자선수의 공식적 참가는 72년 대회였고 우승자는 3시간10분21초를 기록한 니나·커스식이라는것이 공식역사였다。

또한 이런공식말고 여성으로서 누가 맨먼저 이 대회에 참가해 1등을 했느냐는것은 67년 대회에 背番 261번을 달고 골인한 K·V·스윗저로 알려졌고 모두들 그렇게 믿고있었다。

그러나 올해 골인장 대담쇼에 파란 자라목 스웨터、테리천 솟·팬츠、운동화차림의 여변호사며 조각가인 로베르타·깁이 나타남으로써 여지껏의 역사는 진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깁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말했다。『66년 내가보스턴·마라톤 전코스를 완주하고「진실을 말한다」는 TV쇼에 나간것이 생각납니다。이때 누군가가 질문했지요。「이대회에 처음으로 여성으로 뛴사람은 일어나 주십시오」라고요。물론 이때 일어선것은 바로 저 였읍니다』

이얘기를 듣자 함께 대담하려던 스윗저는 자리를 피할수 밖에 없었다。깁은 66년에 이어 스윗저가 뛴 67년에도 이 대회에 두번째로 참가해 여자로서 1등을 했다고 밝힌것이다。

『스윗저가 67년도 1등이된 것은 당시 마라톤은 여자들에게는 생리학적으로 완주할수없는 운동으로 금지되어있어 벌어진 촌극이었다。경기요원 족·셈플은 배번 261번의 그녀가 골인하는 것을 막았다。TV카메라는『뛰는데는 남녀가 없다』고 거세게대드는 그녀를 잡아 방영함으로써 이대회에 여자로는 그녀만 뛴것처럼 알려졌다。

깁은 이때 스윗저 보다 훨씬 앞서 골인했고 다만 제지를 못받아 여자로서 1등을 확인받지 못했던 것이다。

지금은 여성 마라토너들이 많아 보스턴대회에는 3시간 20분대를 달려야만 참가할수 있다。

그러나 깁이 최초로 뛴 66년 그해에는 여성에대한 마라톤의 장벽은 높았다。깁이 마라톤에 감명받은것은 64년 보스턴대회를 보고서였다。화학교수 아버지에 사회학교수 어머니를 가진 깁은 보스턴에서 북쪽으로 8마일떨어진 윈체스터에 살고 있었다。그녀는 마라톤대회에착가한 4백명의 선수가 모두 남성이라는 것을 전연 모른채 운동을 시작했다。

이때까지 그녀의 최대역주거리는 15마일이었다。그녀는 거리를 늘려 달려본 끝에 30마일마라톤 전코스 26.2마일도 가능했다。그때만해도 여성용 경주화도 없었다。간호원들의 가죽구두를 신고 그녀는 연습했다。

그러나 65년대회에 그녀는 다리의 부상으로 출전못했다。66년 초 그는 해군이었던 어떤 남성과 결혼했고 캘리포니아로 이사했다。그녀는 달리는 꿈을 꿨지않고 치즈、肝을먹어가며 매일 연습、66년 대회 4일전 그레이·하운드를 타고 대륙을 질러 보스턴에 왔다。

그러나 2월에 내놓은 참가신청서는 윌체스터 본가에『여자는 생리학상 마라톤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으로 와있었다。깁은 이때야 비로소『꼭 남성과 여성의 장벽을 무너뜨리기위해 마라톤을 완주해야한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뒷번호도 없이 머리를 덮어씌울수있는 스웨터를 입고 남자들 틈에 끼었다。한참 남자들 사이를 뛰면서 머리두건을 팽개치자『야! 여자다!』하는 함성이 일었다。남자 러너들은『열려마시오。이 코스는 자유코스요。누구도 당신을 끌어내지 못할것이오』라며 격려했다。

그녀가 3시간30분으로 골인했을때 주지사는 그녀의손을 잡았고 신문기자들은 그녀를 취재하기 바빴다。

깁은 67년、68년 두해를 더 뛰었다。그러나 67년 스윗저와기요원과의 실랑이 때문에 세상의 각광은 스윗저에게 돌아가버렸고 그녀는법률을 공부하기위해 마라톤을 버렸다。

스윗저는 그후 마라톤계에서는 주역이 되고 유명한 운동구점『아톤』의 판매망의 일원이 되기도했다。

깁이 갑자기『67년대회 1등』『보스턴 마라톤 최초의완주 여성』임을 찾으려는 이유는 간단하다。『진실은 언제나 사실이어야하고 또 그것이 잘못되었을때는 밝혀져야한다는것 때문이다。

깁은 최근 아메리카역주를상을 받았다。그녀는 보스턴에 자동차로 1시간거리『록포트』해변 5에이커대지에 오두막화실을짓고 6살난 아들과 함께 살고있으며 법률사무를 보기전 아침마다 8~10마일을뛰고있다。

그녀는『보스턴에 사랑을 갖고』란 제목으로 66년의 감격을 책으로 펴냈다。『나는 내가 특별한 인간이라고 주장않는다。다만 모든인간은 자기나름의 특이한것이있다는것은 시인한다。나는나자신의 특이성보다 내작품、지식이 사랑·평화·건강을 낳기를 바란다。마라톤이란 이런 3대요소를 갖췄기에 나는 뛰었고 또 승리하고 싶었고 그후 감춰진역사를밝히고 싶었다』【安奉煥기자】

海外 스포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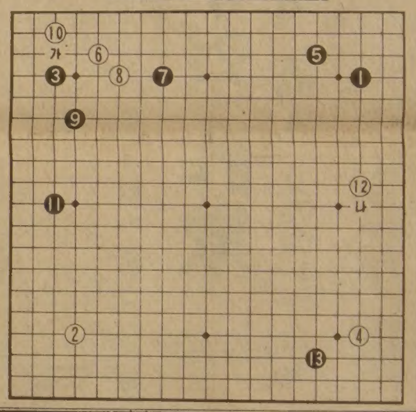
제14기 名人戰 3次予選 決勝

第2局 第1譜 1~13

白 (初段) 崔能珪

黑 (6段) 徐旭晰

(각4시간·덤5집반)



崔초단은 全北扶安태생으로 약관19살、현재 中央대학 1년생이다。7년전 12살에 입단했을때는 하나의「異變」가 탄생한듯이 적잖은주목을 끌었으나 그뒤 이렇다할 천재의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고있었다。한데 지금名人戰에 참가하여 1、2차예선을 거뜬히 통과하더니 마지막 3차예선에서 8단을 포함한 뭇선배강호 마저 물리치고 본선진출이 결정되는 이 바둑에 임하자『제2의 徐奉洙가 출현할 것같다』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다。

과연、초단때 본선에 진출하여 2대 名人位에 오른 徐7단처럼 될른지 어떨지 속단키 어려우나 이한판이 崔초단의 앞길에 크나큰 변화를 가져다줄것은 뻔한일。눈을 크게뜨고 지켜보겠다。

제 2의 徐奉洙?

白2 화점에 대해 黑3 맞小目、이하 白6까지를 프로기사는 변형、즉 말해서 취향에 속하는 포석이라고 한다。그런가하면 갑자기 白8로 견실한 수법을 들고 나온다。그리고 白10으로「가」에 붙이는 형을 피하여 결국 黑11까지 평범한 정석이 생겼다。

「모로가도 서울」이라면 그만이지만 崔초단쪽이 조심성있게 판을 짜갈 요량인지 여기까지 혼자 30분이나 시간을 소비했다。

다음 白12로 13자리를 굳히면 黑「나」가 뻔하므로 우변에 선착했는데 黑13 당연한 걸침때가 어려웠던지 崔초단은 선뜻 두려하지 않는다。【一凡】

구독신청 533-2361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朴婉緖 作 金光培 畵 212

미리 온 아이 ⑮

남자는 말씨까지 딴사람처럼 부드러워졌다。첫인상이 동상(銅像)을 연상하리만치 손톱 하나 안들어가게 단단해뵈는 남자였다。장사꾼으로서의 철두철미한 타산외에 괜히 마음이 흔들려본 일이 있을 것 같지않은 남자의 마음에 연인의 정을 불러 일으킨 게 자신의 무참한 변모라는걸 모를 오목이가 아니었다。가게로 처음 일환이를 찾아왔을 적이 먼옛날 일 같았다。

『몰라봐서 미안하구먼』

남자는 자신에게 갑자기 일어난 연민을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는 것 같았다。등에서 아기가 몸을 힘껏 뒤틀더니 울기시작했다。

『여기서 젖을 좀먹여도 될까요?』

그녀는 아기를 내려서 품에안고 비스듬히돌아앉아 가슴을 열었다。따뜻한 고장에 편히 앉아 젖을 먹인다는 게 현재의 비참한 상황과는 상관없이 그녀를 충족시켰다。

『유군이 아직도 집에 안 들어간게구려』

『알고 계셨군요?』

『알고말고。야단도 치고 타이르기도 했건만…』

『뭐래요?』

『다신 안그러구 새사람노릇하겠다고、번번이 뉘우치기 하난 잘하는 친구니깐』

『왜 그런데요?』

『또 그 버릇이 도진게지 뭐』

『그버릇이 도지다니요?』

『애기엄마에게 이런 얘기 하긴 뭣하지만 유군이 여자하고 살림차려서 일년을 넘긴 적이 없거든』

『저도 그건알아요』

『유군이 거짓말은 잘못해』

『다 여자쪽에서 먼저 도망을 샀다던데요。모아놓은 돈민 빼어먹고…』

오목이는 말을 골라쓰려고 신경 쓰지않고 마구 지꺼렸다。젖가슴을 헤치고 앉아있으니까 낯가죽도 두둑해지는것같았다。

『아마 그랬을거야。재수가 없어서 그런지 사람이 용해빠져서 그런지 워낙못된 계집만 걸렸었으니까』

『그러니까 그이가 나쁜버릇이 있는게아니라 못된여자한테 당한거 아네요?』

『참 그렇겠군』

남자가 별 것도 아닌 대목에서 감탄을 했다。

『전 도망도 안가고 아들까지 낳았어요。그러니까 되레 그이가 도망을 가버렸으니 무슨 조활까요?』

『거 참 모를 일이군。여자하나만 잘 만나면 걱정없이 살 친구줄 알았더니만 …아냐 그래도 그건 버릇일거야。살림을 작파하는 일도 안해본 사람은 못할 노릇인줄 알지만 해나면재미가 날지도 모르지。그래서 이번여자는 쉽사리 살림을 작파할 뜨내기가 아닌걸 알고 제놈이 먼저 그짓을 하고싶었는지도…』

오목이에대한 남자의 연민에 뭔가 불순한게 섞이기 시작했다。그건 일변에 한번씩 살림을 작파하고 훨훨 자유로와질수 있는 남자에 대한 선망이랄까 호기심이랄까 그런것일수도 있었다。

『그럼 우린 전혀 가망이 없단말씀인가요?』

그녀는 쪼르록 소리가 날것같은 배에 힘을 주며 말했다。

『버릇이란 무서운거니까』

그렇게말하다 말고 남자가 멈칫 뭐였다。

『아니지。그못된 버릇을 고쳐야해。암 고쳐놔야구말구。제깐 놈이 이런 착한 색씨에다 아들까지 둔 게 과랑해서 환장을해도 분수가 있지』

종합보험

김흥량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주택, 상점보험
●사업보험
●R. R. S. P.
●INCOME AVERAGING ANNUITY
●PENSION

FINANCIAL & INSURANCE CONSULTANT

961-3774(B)
277-8733(B)
624-2103(R)

IMPERIAL LIFE

The Imperial Life Assurance Company of Canada
Suite507, 586 Eglinton Av. E.
Tor. Ont. M4P 1P2

●CAPITAL GAIN, 높은 소득으로 인한 높은 세금의 조절및 경감방안
●기업계승에 따른 문제처리
●생활안정금고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 상담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각종의 사업체와 부동산 일체의 매매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과 이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 주택, 대지, 상가, 사업체, 투자처, 아파트
* 이민이나 고소득층을 위한 투자 알선.
*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인 소개
*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안내.

— 경 력 —

★ 마니토바주립대학 졸업
★ 슈퍼마켓 운영(위니펙)
★ 무역회사 경영(뱅쿠버)
★ 부동산업 종사(다년간)

현재온타리오부동산 브로커

전화 : 〈B〉 (416)497 8900 채 준 선
〈R〉 (416)633 7892 (David Chae)

한국관

기계로 뽑는
냉면 · 짬뽕 · 짜장면
해장국 · 곰탕 전문

628 Bloor St. W. ☎ : 531-0277

佛光寺 법회안내

장 소 : 불 광 사
지도법사 : 석 광 옥 스님
법회안내 : 일요일 오전11시~12시(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좌선 : 참선지도)
주 소 : 288 How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 화 : 223-9152

Everybody's talking about WAGNER..

BECAUSE OF THE SOUND THE QUALITY AND THE VALUE

WAGNER PIANO는

*품질의 높음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구라파와 미국은 물론 카나다에서 수많은 음악전문가들의 호평을 받고 있으며
*카나다의 최우수 대학인 몬트리올의 McGill University 음악대학, University of Alberta 음악대학, Humber College 음악과 등에는 이미 Wagner Piano를 다량 애용중이며,
*상당수의 U of T음악교수들, 카나디안음악인들, 토론토한인음악인들이 Wagner Piano를 소유하고 있읍니다.
*Wagner Grand Piano는 카나다 전체 Grand Piano 판매량의3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일로에 있읍니다.
*Wagner Piano는 12년간 본사에서 품질을 보증합니다.
*Clear and Precise Sound, Uncompromised Quality and Unbelievable Price는 Wagner의 자랑입니다.

WAGNER HOUSE OF MUSIC
JASTOM TRADING COMPANY LIMITED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ARIO M3B 1Z3
☎ (B) 445-1516, 449-8644 (H) 286-1548 대표 박 성 희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LEASE 취급함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거구장

결혼 · 회갑 · 생일잔치 ·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가수 : 김미리자
BAND — 기타 : 신상철
올겐 : 함효상
드럼 : 권순근

월~목 : 오후2시~새벽2시
금 : 오전11시~새벽2시
토~일 : 오후2시~새벽2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KIM'S ART GALLERY Picture Frame Warehouse
◉각종 유화·서양화
◉사진액자 전문으로 취급
◉동양화·초상화
1286 Weston Rd.
(에그링톤×웨스톤)
(B)243-0233 (R)651-2261 김 석환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트로피·감사패 전문
Golden Craft
◉특수인쇄(Silk Screen Printing)
◉ Engraving
◉간판 취급
(나무·유리·의류·프라스틱등 특수인쇄 전문)
1700 Wilson Ave.
(B)247-8870 (R)242-4319 김 국일

소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집수리·신건축·목수일" 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씰링,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 시공.
언제라도 전화 상담 환영.
전화 : 669-5784 (Mr. 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목수일 합니다.
◉제네랄·콘트랙터 면허취득 ◉각종건축수리및 신축상담
전화 : 249-0003 Mr. 최

광고료 · 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VISA master charge

식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 (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광고문의 ☎ : 533-2361

식품점

삼복식품. (주7일 영업)
금요일 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시~오후10시까지
제일좋은 물건만을 골라, 제일 싼값으로 책임있게 봉사합니다. 여름철 야외 바베큐는 맛있고, 살많은 삼복갈비를 이용하세요. 시내어디든지 무료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밭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712 Bloor St. W. 김 덕기

서 울 식 품 (동부)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실내장식

"Fine Design"
설계및 허가, 시공
전화 : 622-5328 (공장) 676-1173 조 덕 남

악기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 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 530-1870
오전 11시~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양장 맞춤·주문배수(수리는 남녀양복 모두 취급)
여성복 Design 변경 또는 재단만 원하셔도 해드림
100 Glenshields Ave. 전화 : 669-5784 Mrs. Kim

귀하의 기업을 불황을 모르는 사업체로 키우고 싶지 않으십니까?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에어콘 히팅 냉장고

PALMER'S
에어콘, 신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행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광 고 접 수
533~2361

운전학교

이스트타운선학교
761 JANE ST
전화 741-6099(B) 743-3377 Mr. Eastman

이삿짐운송

나 마 운 수
사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전화 : 630-6602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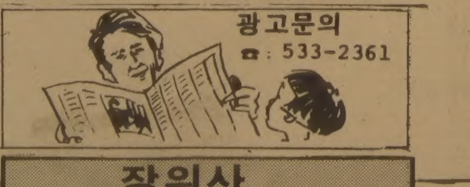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교포특별대우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 영두·이건학



장의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체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완인태권도 完仁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페인트 · 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합니다.
전화 : 731-4204 (Mr. 신)

하드웨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226-3874 시 춘봉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경명등 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R)531-4165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화 랑

U.C.Painting Studio
미술 개인지도, 유화·수채화·뎃상
전화 : 530-4991

회계사무소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회계사무소
33 Cherryhills Rd. Concord. Ont.
전화 : 669-2710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불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8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531-4165(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인

Downtown에 사시는 분으로서 하루 3~4시간씩 집안일 도와 주실 여자분.(Bloor + Jane지역)
전화 : 769-4366 오후6시 이후 김.

유경험자 캐쉬어 구함.
1220 Davenport Rd. (OakWood Ave×Davenport)
전화 : 656-3020

Part Time 웨이트레스 구함.
Mon.-Fri. 11:00a.m.-3:00p.m.
전화 : 368-2470 (after 2:00 p.m.)

GROCERY에서 Cashier 하실분과 HELPER 구함.(단, 유경험자 여자분에 한함)
전화 : 598-2546

Hamburger 식당 HELPER 구함.(남자분 환영)
영어대화 필수. FULL TIME.
5608 YONGE ST. 내방바람. (HOT CORNER)

남자 스토아 헬퍼 Full Time.
남·녀 Part Time 캐쉬어 구함.
학생도 가능함. 625-1620(미시사가 지역)

가게 학생 Helper 구함.
매일 학교수업후 2시간~3시간씩 Help 요!
Kipling & Albion 지역. 전화 : 741-7692

First Canadian Place에 있는 Juice Bar에서 일하실 용모단정한 여자분 구함(18세-25세) 월-금(주말은 쉼)
전화 : 438-0403(6시이후 Mrs. 유)

남자 Store Helper 구함
무료로 숙소도 제공
전화 : 488-1634

유경험자 Helper구함(남자분)
Grocery Store(채소 & 과일)
전화 : 597-1115(오전 8-10시사이)

파타임 웨이트레스 구함.
전화 : 537-0432

기술직 사원 모집

◉자 격

1) 고졸이상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소지한 신체 건강한자.
2) 인쇄용 카메라(NUARC) 취급경험이 있거나 훈련 받을분.
3) 운전 경력 6개월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
4) 신문제작및 발송에 관심을 갖고 협조할수 있는분.

본사 공무국(박정서 국장)으로 직접 내방하시거나 자필 이력서를 우송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일보사 공무국
전화 : 533-2364

토요일만 사무실에서 근무하실 여자분 구함.
문의처 : 533-2363 Mrs. 김

기타

걱정이 있으신 분은 오십시요.
Card, 손금, Tarot등으로 당신의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전화 : 652-1280 (Mrs. Adroe)

5일에 $13로 원하시는 바를 찾으실 수 있읍니다.

구혼

결혼상담, 직업소개, 전자침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 60세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최·김

개인지도

PIANO, THEORY & SINGING LESSONS
AFTER 5 p.m. 2284 DUFFERIN ST.
PHONE 787-0007 PROFESSOR MORFEA

매매

★Bargain Variety
현대식 Plaza(at Oshawa Main St.) 2,400 sq.ft.
주매상 : $7,000. 장래전망 최고.
최저의 가격으로 팔고자함. $59,000+stock.
★ High Volume Convenience Store.
성업중이며 매우 바쁜 거리에 있는 Plaza안에 있음.(Oshawa) 주인이 새로운 Business를 하기때문에 좋은 가격으로 팔고자 함.
$60,000+stock. 6년 리스

Bagot Realty Inc. (Realtor)
Phone : 1-579-4010
after hours Frank Magnus 683-8154

Brick Building + Variety & Grocery
아스킹 : $129,900.(West Toronto)
A.E.LePAGE
Chaherine Ryerson
전화:537-3431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가정사정으로 부득이 앞으로 전망좋은 휜치×웨스턴 몰안에 있는 쌍방울 메리야스 가게(애기옷, 베드스프레드, 담요, 카페트)를 매매코저 하오니 연락 바랍니다.
〈애기옷 0-6살까지〉 3467 Finch West Mall
전화 : 746-3458 Mrs.윤

카메라 상점 급매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Mr.김

Variety Store
주매상 : $4,200. 리스 : 5년+5년 아스킹 : $40,000+스탁
Rent: $600. 전화 : 266-7833 Mr. Kim

Restaurant for Sale,
near the Christie Subway, Fully equipped,
Fully licenced under L.L.B.O.
Immediate Occupancy Reasonable Price.
Ask Miss Yen. 536-6769 or 532-7489

소매상점을 짓기에 대단히 좋은 지역임(New Market)
5,000Sq.ft까지 건물을 지을수 있는 대지
135 ft.(전면) by 140 ft. 전화 : 889-2075

발전성 있는 가게임. 현재 주매상 : $3,000
리스 : 5년 + 5년
전화 : 466-7698 Mr. Lee

베커프렌차이스 매매
연락처 : 691-9414 (월-금 오후5시이후)

성업중인 Variety Store for Sale. 가정사정으로 급매.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겠음. 주매상 : $3,000. 렌트 : $300(M)
전화 : 259-0323

〈해밀톤〉
버라이어티 스토어 매매. 2층살림가능.
전화 : 1-527-6974

Variety Store, no grocery
3447 St.Clair Ave. E.(at Birchmount)
전화 : 265-9000

새 Store 양도(New Plaza) 전망좋은 가게를 사정에 의하여 양도 코져함 새로 Set up 하실분.
전화 : 532-7421 Mr.서

Bloor West Village
▲Coffee Shop. 전망이 대단히 기대됨.
High Rise 건물들이 옆에 있음. 아스킹 : $29,000
▲Varity & Gift & 6 Video Machines
아스킹 : $34,000. 머신으로부터 월수입 $3,000
▲7 Unit Apt.
Gross : $25,400. 아스킹 : $220,000
▲Special Spacious Town House
3 Bed Rm. Balcony, Storage
Mortgage : $24,000 at 10%
Call : Doris Bruda 763-5555
High Park Area
▲Modern Full Equipped 49 Seats
식당+Two 6 Rooms Apt.
최고의 분위기를 갖추고 있음. 아스킹 : $49,500
Call : Goe Zammit 763-5555
Cholkan Real Estate

Carpet Cleaning Business for Sale
순 월수입(Net Income/M.) $4,000(Brampton 지역)
아스킹 : $20,000. 전화 : 791-3570(Mr. Yosuke)

〈버라이어티 스토아 주매상 $5,000〉
아스킹 : 50,000+스탁. 렌트 : $900(2층에 4베드룸 포함)
4975 Yonge St. (세파드×영)

Tuck-Shop 매매
주매상 : $4,500. 리스 : 2년+5년
연락처 : 272-4568, 270-1371

Store 장비 일절 급매(사용하던것)
오전중 문의바람.
전화 : 221-6544 (Mr. 안)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4608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 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호남향우회	651-8835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우회	261-2917
캐나다체육회	533-933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K. A. L.	862-8250
조흥은행	363-3448

아파트렌트

독신자 방세놓읍니다.(단기 체류도 환영)
또한 Part Time 봉제작업하실분 환영.
상세문의 6시이후 530-1046

방세 놓읍니다.(곧 입주가능)
2-Bed Room(Keele St. & St. Clair) 1-Bed Room
(Dundas & George St.) 전화 : 226-2077, 763-3289

집렌트

House for Rent. (3 Bes Rm.: 6 Rms)
31 Barton Ave. near Bathurst. 가격은 드는 사람에 따라 적당히 조정될 수 있음. 447-1869 (Mr. Don Fenton)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석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시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훈모부동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복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A.E. LEPAGE (우덕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저희 한국일보 안내광고는 저렴한 비용으로 놀라운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광고문의, 신청 : 533-2361~4

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한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1-2311 조의 [illegible]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병권

가구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린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석민

간판

각종 [illegible] 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진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귀금속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Albion)
전화 : 712-1205(B)(R)743-4842 Mr. 마

꽃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동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심은꽃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히소피아

도서판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메리야스

[illegible]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1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번역및통역

[illegible] 필요하신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미용

퀸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조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서울여행사 이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레이몬드미용실 (수잔: 한국인)
•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쇼×로얄욕) 전화: 255-4745

ANNIE'S BEAUTY SALON
◉남·녀 파마, 컷트, 화장전문, 여드름, 주름살 치료, 메니큐전문, 머리염색, 귀걸이 구멍뚫기.
◉차편제공 가능, 불란서고급 화장품 취급.
812 Queen St. E (퀸×브로드·뷰) 463-9071 Mrs.Lee

변호사

"이민법과 그에 따른 제반업무 전문"

새로 이전한 주소:
390 Bay St. 19층
Tor. Ont. ▲ 361-0404
▲ 593-1818

Barrister and Solicitor
SHELDON M. ROBINS

보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신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791-8196

비데오 센타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병헌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생일·파티케익등 전문 (배달가능)
534 St.Clair Ave. W. 전화 : 653-1149 Mrs.백

사무용구및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전화 : 252-7377 (R)762-4536 Mr. 안수일

사진

새한칼라현상소 (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지개칼라-촬영전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귀하의 기업을 불황을 모르는 사업체로 키우고 싶지 않으십니까?

선물센타

거북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생선

K & R Sea Food
전화 : 259-1585
▲얼리지 않은 각종 생선.
▲싱싱한 회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